

새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리차드 뱀브란트 지음
전 덕 애 옮김



도서출판 **연일**

새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리차드 뱀브란트 지음
전 덕 애 옮김



도서출판 **연일**

서 문

이 책의 원 제목은 Victorious Faith로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옮겼어야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페이지를 펴든 순간 첫 이야기에 홀려 버렸고, 그 이야기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좀처럼 나를 놓아 주려 하지 않았다.

죽음으로 새장을 벗어났던 트위터위의 지혜는 깜찍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서 늘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려는 나의 큰 잘못을 일깨워 주곤 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열망을 지니고 살고 있다. 돈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권력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더러는 돈이나 권력 따위는 아예 초월하

여 학문이나 봉사의 생활을 통해 자유인이 되는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돈을 벌수록, 권력을 쥘수록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학문이 깊어지고 봉사의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 권위와 교만과 위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 아니었던가?

세 걸음 이상 옮길 수 없는 지하의 독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뵘브란트 목사님의 비법을 우리 모두 익혀 삶으로 참자유인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뵘브란트를 소개한다.

새장에 갇힌 독수리보다 하늘을 날으는 참새가 부러운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니리라.

1982년 초여름
옮긴이 적음.

옛날에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는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새를 선물로 받았다. 그는 그 새의 이름을 트위트위라 짓고 황금 새장에 넣어 두었다. 그러나 가엾게도 새는 황금 새장을 보고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새는 왕자에게 자유를 달라고 간청했으나 왕자는 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도저히 새를 놓아 줄 수 없었다. 그러자 트위트위는 왕자에게 숲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서 비록 자기가 새장에 갇힌 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살아 있다는 소식만이라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왕자는 숲으로 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왕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트위트위의 여동생이 땅으로 똑 떨어졌고, 왕자는 자유를 사랑하는 트위트위가 새장에 갇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여동생이 그만 죽고 만 것이라고 생각했다. 슬픔에 잠긴 왕자는 궁전으로 돌아와서 트위트위에게 그녀의 여동생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트위트위도 자기 여동생과 똑같이 기절하더니 새장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왕자는 가엾은 새를 새장에서 꺼내어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죽은 새를 무엇 때문에 새장 안에 가두어 두겠는가?

눈 깜짝 할 사이에 트위트위는 푸르르 날아가서 나무 위에 앉더니 재잘대기 시작했다.

“왕자님께서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제게 전해 준 것이 실은 제게 좋은 교훈이 되었답니다. 죽은 척함으로써 새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 동생은 제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누구나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명한 분들은 언제나 행동으로 가르쳤었다. 서른세 살이라는 젊고 원기왕성한 나이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문제들에 대하여 죽어라!

죄가 당신을 유혹하는가? 당신이 죽었다면 죄를 범하겠는가?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 죽어라! 세상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면서 당신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죽어라! 각종 종교들이 당신의 삶을 어떤 틀에 혹은 율법 속에 틀어넣으려 한다. 율법에 대해 죽어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계신다. 포로된 당신도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문제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가? 당신은 마치 죽은 것처럼 그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대하라.

자유를 얻은 새의 이야기에서 배워라. 이 책의 목적은 자유의 길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이 책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감상의 표현이 아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차기들의 견해나 차기들의 관점을 설명하려는 어려운—그리고 영감적인—설교를 싫어한다. 나는 또한 좋고 나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치적 집회도 싫어한다. 진리를, 객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옛날 옛날에 유태인들 가운데에는 예언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나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다.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을 쓴다고 웃는 사람도 있으리라.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웃는 것을 좋아한다. 나를 보고 웃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웃음은 건강하다. 그래서 의사들은 웃음을 권장한다. 이 세상에는 웃을 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 왜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웃지 말라고 할 것인가? 원한다면 이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나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점만은 기억하기 바란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아느냐고? 하나님은 내가 아닌 어떤 분,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분이 아니신가? 그분과 대화하는 내 방법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될 때도 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오해할 때도 있다는 말이다.

십자가 위의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라는 뜻의 히브리어이다. 십자가 밑에서 있던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오해는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리처드 범브란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옛 선지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문법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은 서로 상이하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동사 변화를 설명해 보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에게서 났다고

대답한다면 질문을 한 선생님이 종교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나쁜 점수를 줄 것이 분명하다. 문법 시험과 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문법도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실제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는 동사 변화를 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칭 대명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물건의 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내 집, 내 책, 내 아내와 다른 사람의 것들과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 '너', '그'라는 말들을 쓴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사들은 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 문법에 맡겨 버리고 종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존재임을 모르신다. 그분은 자기의 제자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자신이 핍박을 당한다고 느끼시고, 우는 제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제자와 함께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악한 자들이 이런 꾸중을 듣게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배고프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으나 너희들은 나를 찾아 보지 않았다.”

그리고서 자기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설명하신다.

주 예수님은 종교에 있어서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와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구별하지 않고 쓰시는 걸 보니 문법 시험에는 합격을 하지 못하실 것 같다.

기독교는 사랑에 취하는 데에 존재한다. 취한 사람들은 사물과 사람들을 혼동한다. ‘나’와 ‘너’와 ‘그’의 구분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취해 버린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

† †
 †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리이다.” (I am the truth.)

그런데 그 후 2천 년 동안 그분의 이 말씀이 왜곡되게 전해져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용되어져 왔다.

“그는 진리이다.” (He is the truth.)

그러나 그분은

“그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나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he)’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비록 대문자로 쓴 He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리를 놓친 셈이다.

2천 년 전 팔레스티나에 목수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 예수가 현대의 기술, 사회주의, 민주주의 혹은 군부의 독재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을 택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타일하드 드 샤르탱(Teilhard de Chardin)의 철학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인슈타인(Einstein)의 이론에 함축된

철학적 의미를 인정할 것인가, 정통과 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 교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 그분 예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천 년 전 팔레스티나에 살았던 예수가 진화론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당신에게 스티브와 결혼하지 말고 죠오지와 결혼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당신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결코 ‘그’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진리라고 하는 조건으로서 언제나 ‘나’로 있어야 한다. ‘그’가 진리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진리라고 하셨다. 내가 진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는 늘 ‘나’이어야 한다.

그분이 내가 되어야 한다(become)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분이 곧 나이다. (He is an I.)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이다.”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나의 눈이 열릴 때 나는 바울사도와 더불어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생각에 대해 자신을 가지게 된다. 내가 책을 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 왔다.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소명을 구별해야 한다. 나는 내 자신을 지극히 미천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소명은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것이다……누구도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소명은 높이 찬양해야 한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모두가 다 목수도 아니고, 그분의 제자 모두가 다 남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분과 같아진다는 말인가?

그분은 자기가 옳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사셨다. 오늘날처럼 그분 당시에 수백 가지 종교가 있었다. 갈릴리에만 해도 여러 나라 사람의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종교들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았다. 그분은, 인류는 자기의 (His) 종교를 택해야 한다고 믿었다. 팔레스티나는 열심당, 헤롯당, 에세네파 등 여러 파로 갈리어져 있었다. 예수님은 이들 중 하나도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세상사에 대해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분은 결코 남들이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은 진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이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셈이 된다.

영적 생활의 실체를 보통 인간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려면 인칭 대명사를 써야 할 것이지만 내가 쓰는 말들은 투명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쓰는 말들을 꿰뚫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내게 오라.”

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은 그분이 당신에게는 더 이상 ‘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하면서 그분에게 와야 한다.

다시 한 번 이것을 분명히 해두어야겠다. 나는 당신에게 그분께 가라고 하지 않는다. 그분의 성스러운 말씀은

“내게 오라.”

였다. 그분에게 가지 마시오. 즉 앞으로는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는 언어학적 구조에 의해서 우리 속에 생성된 하나의 환상이다. 이들 때문에 나도 대명사를 오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위 ‘나’라고 하는 말이 각기 다른 힘들이 일시적으로 만나는 점에 불과하며, 이 힘들은 그 크기와 방향이 계속하여 변하리라는 것을 의식하며 오용하는 것이다. ‘나’와 ‘너’와 ‘그’의 범주 밖을 생각하도록 하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 자체와, 생각하는 행위가 다 하나이다.

전능한 ‘나’가 하나 있다. 십계명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한다(사도행전 17:28). 우리들이 하나님의 내적 삶을 형성한다. 우리는 그분의 밖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나’와 대조되는 우리들의 ‘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하신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답한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나라”(예레미야 1: 6~8).

“내가……소리를 하지 말아라……내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다.

그분의 ‘나’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나’의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장차 세례 요한이 될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천사에게서 들은 즈가리야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늙은이입니다.”

이 항의는

“나는 가브리엘이다.”

라는 말에 의해 무력해 지고 만다(누가복음 1: 18~19).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의 형편에 따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나, 즈가리야’가 아니고 ‘나, 천사’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하셨다(누가복음 12: 16~20)이 사람은, 이 세상의 재물만을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가 바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성경의 세 절 가운데에서 그는 ‘나’와 ‘나의’라는 말을 아홉 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 ‘나’가 바로 그날 밤에 죽을 것이며, ‘나의’ 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이야기하겠다. 하나님께 온다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실재에, 당신이 그 모습을 닮고 있는 그분에게, 유일하게 참된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과 같다.

예수님께서 시에나의 캐더린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존재하는 그요. 너는 존재하지 않는 그이다.” (I am He who is, you are she who is not.)



부카레스트에 있는 내 교회에 러시아인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모든 예배의식에 사용되는 루마니아어를 한 마디도 몰랐으나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다. 내가 설교할 때면 그는 러시아어로 된 신약성서를 읽었다.

나는 그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어느날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나는 당신의 목사입니다. 당신이 읽는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 아무 데나 한 군데를 찾아 읽고 나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는 고린도전서 1장을 읽고 이렇게 설명했다.

“사도 바울은, 차기는 복음을 심었고 아폴로라는 사람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바울도, 아폴로도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 바울도, 아폴로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범브란트 목사는 얼마 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나는 그가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포용하고 축하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하룻밤을 지냈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의 돌 바닥처럼 무감각한 냉혹한 인간들 중의 하나가 되지 말아라.



“내게 오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의 예배의식에 오라는 뜻만은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재판관은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당신의 일을 개선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개선시킨 것을 고맙게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그에게, 그에게만 오기를 바라오 계신다.

기독교는 수세기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생겨난 최초의 그리스천 공동체의 기독교와 달랐으며, 이것은 이방세계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들과도 달랐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국가교회는 또 다른 것이었다. 교회는 그 후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와, 이성주의 시대와, 경건주의 시대와, 근대주의와, 공산주의 세계의 지배하의 교회와 지하교회와 자유 세계의 카리스마적 운동 등을 거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오리겐은 기독교란 항상 보다 높은 것을 위해 준비하는 신성한 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전달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신다.

“내게 오라.”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이 헤어짐은 결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모든 지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진리이다. 단 진리의 반대가 반드시 오류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반대의 진리일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헤어지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인간 속의 ‘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에게 도달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나의 제자들)은 가게 내 버려 두어라”(요한복음 18:8).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지셨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아라”(요한복음 18:21).

다행히도 옆에서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갈렸기 때문에 이 논란은 중단되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서 치명타를 당했을

것이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 내가 물을 수 있겠소? 그들 중 하나는 당신을 팔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팔면서 당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으리라는 것은 당신도 짐작할거요. 당신의 또 한 제자는 지금 저 마당에 있는데 그는, 당신은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며 자기는 당신을 조금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소. 당신의 말을 들은 몇 사람이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요. 이 점은 별로 좋은 교훈이 못 되는 것이 분명하오.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에게 말을 했으나, 그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했소. 그들은 내일,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라고 외쳐댈 것이요.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도 여기 있으나 아무 말이 없소. 당신의 교훈에 대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당신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소.”

그 이후로 이러한 상황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교훈을 알고 싶거든, 그의 제자들을 가게 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첫째 권고는 이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 길을 가게 하시오. 교회와 교회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든 그르든 다 자기 길을 가게 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혼에만 답하여 예수께로 오시오! 오른쪽도 왼쪽도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상관하지 마시오. 당신만 예수께로 오시오!”

†

†

†

그분과 하나가 될 정도로 그분께 가까이 오시오!

초대 크리스천들이 지하교회에서 모일 때에, 이런 예를 사용하였다.

어떤 소년이 미칠 정도로 어떤 소녀를 사랑하였다. 어느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밤 늦게 그는 사랑하는 소녀의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소녀는 그에게 물었다.

“누구세요?”

그가 대답했다.

“나요.”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제 방은 아주 좁아서 단 한 사람 밖에 있을 수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그는 자기의 슬픔을 잊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다. 그는 그녀도 자기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거절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는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었다.

어느날 밤 늦게 그는 다시 소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당신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방문이 열렸다. 그의 사랑하는 소녀는 그를 안고 말했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부피를 가지셨을까? 그분은 한 상자 위에 있는 두 개의 막대기 사이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이 상자 속에는 시내산에서 유태인들에게 내리신 십계명이 들어 있다. 이 우주에서 하늘은 제일 좁은 공간이다. 그곳에는 오직 한 분만이 계실 수

있다.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불사조와 거북이〉라는 시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에서 숫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사랑은 다수(多數)와 공존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 영혼이고 한 마음이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아버님이 하나이다. 믿는 자와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사랑 안에서 ‘나’와 ‘그’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솔로몬 왕이 그의 아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왕비가 육십 명 있고

후궁이 팔십 명 있으며

궁녀가 수없이 있으니 그들이 다 무엇이랴

티없는 나의 비둘기는 오직 하나뿐

(아가 6:8)

†

†

†

더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경고하겠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에게 큰 책임을 지우고 계신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영적 자살을 범하는 것이다.

평생동안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만 있다가 하나님에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자기의 일생을 망쳤는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커튼 뒤에서 이 적이 나타났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당신의 최대의

적이다.

우리들은 앞으로 자기의 살 집인 고치를 준비하는 누에와 같다.
당신은 앞으로 당신이 살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루마니아의 루고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어떤 감옥의 책임자가
중위인 부책임자를 체포하여 가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부책임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새로운 정치범을 수용하게 되었으니 감방을 하나 준비해 두게.”

중위는 간수를 하나 데리고 가서 감방들 중에서 제일 나쁜 감방을 하나 골랐다. 물론 감옥의 감방이란 다 나쁘지만 그래도 어떤 감방에는 빛이 더 들어오고, 어떤 감방에는 덜 들어오고, 어떤 감방은 습기가 차고, 어떤 감방에는 습기가 없다. 어떤 감방에서는 이리 저리 세 걸음을 걸을 수 있는데, 어떤 감방에서는 두 걸음 밖엔 걸을 수 없다. 중위는 제일 나쁜 감방에, 제일 나쁜 밑짚 매트리스를 골랐다. 그리고 책임자에게 돌아가서 보고했다.

“감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그는 중위를 데리고 그 감방으로 가더니 주위를 돌아보며 물었다.

“새로 오는 죄수에게 이것보다는 나은 감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

중위가 대답했다.

“대위님, 대위님은 너무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 배신자에게는 이런 감방이 꼭 알맞습니다.”

대위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가 바로 그 배신자다. 들어가거라.”

그리고 감방 문을 철커덕 닫았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미래의 집을 결정한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지옥은 나쁜 곳이다. 나는 그걸 안다. 지옥은 무관심으로 둘러싸인 곳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그곳에 종종 들어간다. 누가복음 16장에는 하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도와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려고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악마들과 영원토록 그곳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시에나의 캐더린 성녀는 악마를 한 번 보고는 한 순간이라도 그런 괴물을 다시 볼 바에는 새빨갛게 타오르는 석탄 위를 평생 걸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악마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성 앙쌍은 이렇게 말했다.

“지옥에서는 영혼들이 너무 뽕뽕 묶이어 자기들의 눈알을 파먹는 별레조차 떼어 낼 수 없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다.

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그분 뒤에는 커튼이 쳐 있으며, 그분 앞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즐지어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면, 이것을 신호로 하여 말할 수 없는 광휘로 빛나는 사람들이 커튼 뒤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을 사람 하나하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물을 것이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할 것이다.

“이것은 만약 네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네가 이루었을 너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놓친 기회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여, 자기들이 이루었을지도 모를 아름다운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지옥으로 도망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께 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존재인 본래의 당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당신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실재하는 당신 자신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부자의 작은 아들이 성급하게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돈을 다 써 버렸다. 돈이 다 떨어지자 그는 돼지 치는 직업을 얻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들이 먹는 찌꺼기라도 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는 이가 없었다. 견디다 못한 이 탕자는—성경에 이르기를—자신에게 돌아왔다. (“came to himself”: 제 정신이 들었다는 뜻: 역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왔다.—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그러면 그때까지 어디에 가 있었던 말인가? 영어에도 'He was beside himself(그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뜻: 역자)'라는 표현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밖에 있었다. 그는 자기 정신을 활용하지 못했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선의 충동에 의한 인도를 받지 못했다. 원숭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따랐을 뿐이었고, 앵무새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 탕자는 자신에게 돌아오자, 즉 참다운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곧 진리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이때까지 예수님 밖에서(without Jesus) 살아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참된 당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름다운 본연의 당신이 당신 속에(within you) 없었다는 것 뿐이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속에 계시면서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으나, 당신은 먼 나라에 가 있었다(갈라디아 1: 16). 나를 통해서 당신 본연의 인격이 당신에게 말한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당신의 양심이고, 당신의 참된 '나'이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워 들은 여러 가지 편견과 신념에 꽂차 있다. 배우가 오늘은 '햄릿'을 연기하고 내일은 '오셀로'를 연기하나 그는 덴마크의 왕자도 아니고 질투심에 불타는 무어인도 아니다. 그는 그 자신일 뿐이다.

당신은 이때까지 무신론자의, 불가지론자의, 혁명가의, 마약 중독자의, 성학대자의, 수전노의, 탐욕가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혹은 그 이외의 많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연기해 온 역할에 불과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된 본연의 당신이 이제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교사였던 루터가 참된 신앙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신앙과를 구별해서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는다’ 혹은 ‘나는 믿지 않는다’란 말을 할 때 그는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틀릴 수 있다. 암이 자기의 몸을 파헤칠 때까지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병이 순전히 상상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당신의 불신앙이 당신의 상상력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신앙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fides reflecta*’, 즉 그 존재를 인식하는 신앙이 아니고 ‘*fides directa*’, 즉 단순히 존재하는 신앙일 수 있다. 어린 아이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존재한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 본연의 당신은 당신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가 당신의 ‘자신’이고, 당신의 양심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는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내 말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당신을 비추었던 그 빛을 깨달을 것이다. 후에 당신도 탕자처럼 당신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갔었다. 지금 당신은 부르심을 받고 있다. 당신이 돌아오면 당신의 믿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속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과 똑같다.



당신은 싫습니까? 종교는 무용하다고 말하렵니까? 나도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문제는 유용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냐이다. 당신과 나는 얼마나 유용한가? 어떤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나의 의견이 얼마나 유용한가?

벽들이 방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이 방을 유용하게 만든다. 컵 안의 공간이 있기에 컵이 쓸모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득 찬 것에 의존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에 의존하여 산다. 걷는 데 발바닥만이 필요한가? 발 전체가 걷는다. 그러나 걷는 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없으면 발도 걸을 수 없다. 심장, 허파, 외피(外皮), 척추, 중력의 법칙, 이 지구의 원자력, 화학적 구조, 그리고 길.

네, 종교는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없이도 살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예술이 없이도, 책이 없이도, 글을 읽을 능력이 없이도, 바지가 없이도, 신선한 공기가 없이도, 햇빛이 없이도, 사랑하고 사랑 받음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이라는 이름을 붙일 가치도 없다. 삶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물을 것이다. 왜 누구든 당신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꼭 당신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늘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만 찾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리라는 예언만을 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삶을 약속한 것은 그후 훨씬 뒤의 일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리라는 것과 천국에 한 자리를 얻으리라는 것도 모른 채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의 발을 씻었다. 그녀는 그냥 사랑만을 위하여 사랑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일어나라! 비천한 것들에 만족하여 멈추지 말라.

지난 50 년 동안의 세상이 그전 5천 년 동안에 세상이 바뀐 것보다 더 많이 바뀌었다. 어떤 사람들은 변광성과 신성과 우주의 팽창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자와 소립자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유전인자에 관심을 가진다. 사소한 것, 일상 생활에 안락을 주는 잡다한 것으로 분주하지 말아라. 궁극적인 실재를 추구하라. 전체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러려면 당신의 마음에 수천 가지 의문이 생겨날 터인데, 참된 크리스천 교사는 그들을 무시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는 학생이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교사의 생각에 학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르친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수많은 종교적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 영혼이 바다처럼 조용해져야만 하늘의 아름다움을 비칠 수 있다.

훌륭한 교사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의 많은 질문에 복잡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지워 버리고, 그들 속으로 숨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이 되지 말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거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말 없는 악기가 되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려 서지 마시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영혼들이 신학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마굿간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으며, 성경에 모든 행적이 기록되신 그분이 지금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내부의 목소리, 즉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고 계신다.



사람들 중에는 ‘자본주의와 싸워라’, ‘공산주의와 싸워라’, 혹은 ‘이슬람교와 싸워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하나가 성공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나치에 대항한 투쟁이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후 세상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슬람교와 싸우지 말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다.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평화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슬람교에 대하여 싸울 생각도 말고,

평화롭게 공존할 생각도 말고,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인류의 커다란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들 모두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뿐이다. 당신이 그분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게 된다. 문제라고 생각되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령탑에 모시고 당신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것이 곧 그분의 삶이 된다.

당신을 좀먹어 들어가던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

고 물으신 적이 있다.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 했을 때였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주님도 대답을 고집하지 않으셨다. 만약 주님이 고집하셨더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험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의심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었다. 일단 예수님께 속하면 삶이나 죽음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와 ‘당신’ 사이에 구별이 없으니 당신도 영원하다. 참된 종교에는 문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우리들의 적은 종교는 일종의 아편이요,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환상이 다 잘못된 것인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부드러운 방식에 누워 잠자는 듯한 환상을, 일어 죽는 사람은 더운 난로 옆에서 쉬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어떤 환상은 우리들이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 방어 의 심리작용이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듯이, 환상에도 좋은 환상이 있고 나쁜 환상이 있다. 옥에 갇혀 쇠창살틈으로 젖을 내 밀어 불행한 아들에게 젖을 빨게 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도 환상일 수 있다. 환상은 놀라운 힘으로 죽음 직전에 다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힘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안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이다.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크리스천들은 불교신자나, 힌두교 신자나,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다 틀렸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들 모두가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크리스천들도 신화에 속지 않으려면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전도사가 열두 살 난 유대 소년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년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목사님, 그 반대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분을 믿는다면, 목사님이 멸망합니다.”

우리들은 힌두교인이거나, 유대교인이거나, 무신론자이거나, 물

몬교인이거나, 천주교인이거나, 개신교인이거나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에 영원한 삶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그리스도가 신화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다.

칸트는 인류에게 크게 봉사한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정신에 의해서 생성되는가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상을 파악한다. 우리의 정신은 원인과, 결과와, 질과, 양과, 양식에 따라 이 인상들의 범주를 정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복잡한 정신 작용을 통하여 우주물, 우리의 내적 우주물,를 구축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에 의해 사색하고 이들을 점점 더 추상화시킨다. 신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틀림없이 우리의 정신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이 실제와 어느 정도까지 부합하는가?

우리들이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종교의 신봉자들은 다 자기의 종교만이, 혹은 자기의 무종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다고 믿는다. 인류의 대다수가 속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내게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도 속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교훈을 통하여 하늘 나라의 문을 사람들에게 열어 주고 있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은 하늘 나라의 문을 닫고 있다고 선포하셨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신앙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도 자신이 믿는 바를 주장하며 죽었다.

이들 둘 중 누가 옳은가?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생애의 여로 중간 지점에서 나는 옳은 길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숲에 이르렀다.”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체험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진리를 향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며, 인류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더러는 자기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유익이 없는데도 아주 진지한 태도로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아니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꼭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들 중 누구에게도 한 푼의 이익이 돌아올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는 바람직하고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는 본능에 쫓겨 모두들 간단없는 탐색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탐색 도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분은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자기의 경쟁자라거나 적이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솔로몬의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종교를 따르는 무리들을 ‘임의 벼들이 치는 양떼’-적수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분은 자기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은 구두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구두점을 찍어야 옳겠는가? 나는 이렇게 찍고 싶다.

“나는 길이다 : 진리이고 생명이다.”

대개의 약병에는 혼합물이 들어 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교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혼합물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들 모두가 따라야 하는 길의 상태, 진리의 추구에 대한 해답, 삶의 필수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진리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곱사등이를 곱사등이라 부르고, 모든 못생긴 처녀들을 못생겼다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자질을 부여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핸디캡으로 짐을 지운다. 우리는 생명의 싹을 꺾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



어떤 소년이 하나는 주일 학교에 내고, 하나는 사탕을 사 먹으라고 10전짜리 둘을 받았다. 그러나 소년이 넘어지는 바람에 동전들이 굴러가 버려 하나는 찾을 수 있었으나 하나는 시궁창 속으로 빠져 버렸다. 소년은

“주님, 당신의 동전이 빠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다.

진리는 이렇게 말한다 : 하나는 사탕을 사 먹고, 하나는 주님께 바치라고.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간직했던 동전을 잃게 된다. 그러면 진리가 차원을 낮춘다.

“남은 10전짜리 중에서 단 1전이라도 바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데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유감의 뜻이라도 표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은총과 진리에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요한복음 1:14). ‘은총’과 ‘진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말은 ‘과’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다음은 두 단어의 순서인데, 은총이 먼저 오고 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요한복음 1:16).

우리들이 진리를 받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더 오래 기다려야만 했다. 그분은 매우 참을성이 많으시며, 지구 자체가 둥근 공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위에 사는 누구도 직선으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그것의 명령에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막상 진리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들 가운데 자신이 진리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의심을 한 유일한 분이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다. 그분은 진리와 진리에 대한 의심 사이에 끼인 접합부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리이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물이라면 그분을 만들어 낸 사람들은 자기들이 쓴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들도 그분에 대해

의심을 가졌었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까지 그분을 의심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서적 가운데에서 진리와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동시에 피력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리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특정인이 되어서 시저 오오거스터스 치세 15년에 탄생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은 의문스러운 분이 아니지만, 그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가지셨고, 부활하신 후까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의심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담스러운 생각, 즉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생각을 종종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재의 일부인 이 생각을 억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신이 무능력해져서 완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유혹은 이성의 재판정에 불러 나와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고귀한 의견을 진술함과 동시에 그분에 대해 아주 명예롭지 못한 사실들도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인 온 백성에게 재갈을 물려 꼼짝 못 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하며(이사야 30 : 28), 노예를 사고 파는 분(요엘 3 : 8)이라고 쓰여 있다.

에스겔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기근과 질병과 피와 검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량같이 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성서가 참됨을 안다. 그리고 나서 성서는 이러한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의 조화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이미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는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닌가? 왜 내가 꼭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들을 똑같은 수준에 놓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베토벤이든 비틀즈든 상관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옳은 종교와 그른 종교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랑 속에 모든 다른 종교뿐 아니라 비종교적인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종교이다. ‘기독교’만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쓰여져 있는 책을 성서로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린도 전서 13:7). 우리들로 하여금 이 종교가 가르치는 것에만 우리 자신을 국한시키지 말고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이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든지간에) 마음에 품으라고(빌립보서 4:8)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그리고 이 종교는 모든 분야에서 오는 선한 것과 옳은 것을 이미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교와도 통합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야말로 참된 종교이다.



많은 부분적인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고, 진리의 전부이시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많은 무리들은 그분을 따랐다. 그분은 그들에게 십자가 이외의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에게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도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얼마 동안은 전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랐던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 지상의 낙원을 약속하는 선동가들을 따르나 그들은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늘 나라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고 사랑했다. 죄인들은 그분에게 은총과 진리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분을 따랐다. 그분은 단순히

“내게 오라.”

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왔다. 그분은 당신에게도

“내게 오라.”

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저 오기만 하라!

당신은 이렇게도 말하리라.

“그러나 나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나는 처녀 탄생과 같은 온갖 종류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법칙들은 결코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들이 깨졌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 같은 분에게 있어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처녀 탄생이나 다른 기적적인 사건들은 2차적인 문제들이다.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를 낮은 차원의 진리와 한데 묶거나, 동등하게 취급하면 언제나 높은 차원의 진리가 손상을 입고 결국에는 잘못된 결합 때문에 죽고 만다. 누구도 당신을 처녀 탄생으로 부른 사람은 없다. 당신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 오라!

그러나 처녀 탄생을 가볍게 넘기지는 말라.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교육을 받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의사 지바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은 우리에게 삶은 평범한 것보다는 이상한 것으로, 평상스러운 나날보다는 축제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당신을 예수께 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선택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당신 위에 있지 않고 당신 아래에 있다. 그분에게 오기 위해서 당신은 어렵게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이 쉽게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당신은 이 생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 백 명의 사람을

죽였는가? 예수님은 수백만 명을 죽인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다. 열 번의 강도질을 했는가? 그분은 수천 건의 강도질을 짊어지셨다. 몇 번이나 음탕한 죄를 범했는가? 그분은 수백만 명의 성적 범죄를 몸소 담당하셨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은 죄인인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오!’라는 감탄사로 그녀를 맞이하셨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로마군대의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그를 칭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큰일인데, 그분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큰일이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죄인인 것을 아셨으나, 그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던가?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당신 자신의 죄로 짊어지셨다.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 하늘의 신랑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

“나는 종려나무에 올라가리”(아가 7:8).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려면 올라오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길은 이 세상에 이때까지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에게로 내려가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살인자, 도둑, 강도, 거짓말쟁이는 없었다. 그분이 이런 죄들을 몸소 지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심오한 방법으로 그분이 이들을 몸소 떠맡으셨다는 의미에서, 이 죄들은 다 그분의 것이다.

예수님께 오기는 쉽다.



예수님의 성격이나 가르침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었는가, 혹은 그분의 생애에 어떤 결점이 있었는가? 그분도 그런 점들은 싫어하셔서 '선한 선생님'이란 칭호를 거절하시면서 선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5:3), 그 말은 만약 당신이 그분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분은

“나쁘게.”

라고 대답하셨으리라는 뜻이다. 그분은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죄들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끼셨다.

당신이 그분의 이 지상 생활 중 어느 부분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오라. 그분은 당신과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신 것이다.

나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아주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언제나 천국은 우리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나를 친절하게 인도하던 여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원래 천국은 매우 높은 곳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까지 올라갈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북쪽 산봉우리의 추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 어느 낮은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고. 내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천국은 언제나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 우리는 승화된 순간에뿐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자기의 딸이 서울에 가서 하녀노릇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자 딸이 집으로 보내 줄 돈으로 땅과 가축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딸을 서울로 보냈다.

소녀는 아름답고 영리했다. 그녀는 큰 도시에서는 자기 같은 여자는 일을 하기 보다는 일을 안 해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재빨리 배웠다. 그녀는 돈많은 남자들을 많이 끌었다.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옮겨 다니며 그녀는 보석과 자동차와 모피를 모으고 쾌락의 생활을 즐겼다.

이렇게 즐기며 살다 보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까맣게 잊고 말았다. 어느날 어머니의 생각이 나자 마음이 아픈 그녀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밤늦게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계신 집 대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어머니가 대문을 꼭꼭 잠가 두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마당을 지나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의 불이 환히 켜진 것을 보았다. 그녀가 마루에 올라서자 어머니가 안에서 부르셨다.

“아가, 너냐?”

“예, 어머니. 그런데 밤 늦게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웬일이예요?”

“딸아, 네가 집을 떠난 후 10년 동안 대문은 잠겨진 적이 없었단다.”

“그럼 이렇게 늦게까지 어머님 방에 불이 켜진 이유는요?”

“딸아, 지난 10년 동안 이 방의 불이 꺼진 적이 없었단다. 너를 사랑하는 이 에미의 마음이 널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이다. 어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은 지금 불안하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성경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틀린 데가 많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원어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성경에는 오류들이 꼭차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문법적 오류가 하도 많아서 거의 모든 문장에서 발견될 지경이다. 루터도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은 문법적인 말로 말씀하지 않고 참된 실제로 말씀하신다고 대답했다. 해와 달과 하늘과 땅, 그리고 당신과 나—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이고, 노래이고 운율이다. 자연과 실체는 모순된 것으로 우리 마음에 나타난다. 성경은 이러한 모순된 것들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오류가 없다.

히브리 성경에 제일 자주 발견되는 문법적 오류는 예를 들면 주어는 단수 명사인데 동사는 복수 명사인 경우이다. 문제는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경우 문법의 잘못이지 성경의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영어로 말하면

“He does a thing.”

이라고 하는 대신

“He do a thing.”

이라고 한 셈이다.

문법이라는 것이 허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법적 오류이다. 문

법은 하나의 'he'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he'는 많은 상반되는 충동을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모든 'he'는 복수이며, 그에 따르는 동사도 복수형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로 packed 있으면서도 항상 옳다. 우리가 성경을 재는 척도가 틀렸을 수도 있다.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가? 왜 그분은 그렇게 애써 자기의 위신을 지키려 하는가?”

그분이 당신의 찬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분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분이 지고의 선이신데, 당신이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찬양하거나 그분보다 못한 것을 찬양하게 되어 당신이 더욱 발전할 길이 막히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파멸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요구하시는 일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자로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은 성자

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을 예수님께로 부른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있어 그들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세계 대전과 혁명으로 수백만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서 각국의 통치자들에게 전쟁 장비와, 지구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세상에는 각종 종교의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종교적 혼란을 불러 왔다. 그런데 성자는 극히 드물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예수님께 오라!



당신과 그분의 관계는 복잡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자기들의 구세주로만 아는데, 아직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치과 의사로만 아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구세주 이상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주인(Lord)이시다. 그분은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도 되신다. 그분은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 …… 어머니이다”(마태복음 12 : 50).

그분은 당신의 형제도 되신다. 그분은 당신의 신랑도 되신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희랍어에 있어서 영혼을 가리키는 ‘ne-shama’와 ‘psyche’는 다 여성 명사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고 불렀는데, ‘어머니’란 단어가 그분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너무

좁은 범위로 한정시켰었을 것이다.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구주이기도 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에 대한 그분의 관계에서 그분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은 그분임으로 해서 완전한 당신의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당신이 어떤 인간과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이다.

당신은 당신을 구해 주고 가르쳐 주실 예수님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없거든 호기심에라도 참석해 보라. 당신은 신부나 목사가 빵 조각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리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포도주 한 잔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그러면 신자들은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자기들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즉 당신의 죄도 몽땅 다—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와 크리스천이 되면 성만찬에 참석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이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당신이 이때까지 행한 모든 불의가 다 해소되고,

당신의 잘못이 다 바르게 되며 굽었던 것들이 바로 펴지게 된다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이 소식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울 것이다. 당신은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I am justified.)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말은

“나는 마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다.” (I am just as if I had never sinned.)

라는 뜻이다.(just if I had를 빠르게 읽으면 justified와 비슷하게 들리는데서 나온 표현:역자주)

당신은 영원히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게 된다. 당신의 악한 행위가 고쳐진 것이 아니고 지워진 것이다. 당신의 악한 생각이 말끔히 닦여 나가고, 당신의 악한 말이 취소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고 충만하여, 그분은 한 부분도 남김 없이 다 구원하신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치르신 이 희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 맡을 수도 있다. 이 선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매 주말에 지불하시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불하신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아라.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가? 그러지 말고 그분의 구원을 수락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그분에게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조차 없다.

†

†

†

정작 복음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다. 예를 들면 당신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기록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 거기에 용서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는 제자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운 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일 위로가 필요한 시각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런데도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에게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란 말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예수님께 오라. 용서하는 것이 그분의 직업이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리아는 그분의 살이었다—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의 몸의 지체요, 살이요, 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에베소 5:30). 만일 내가 크리스천인데도,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몸에 있어야 할 어떤 뼈나 근육이 없어지는 셈이 된다.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죄는 당신의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더 구원하려고 애쓰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의사 지바고)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내가 내 머리를 풀듯이 내 빛을 풀어 주소서.”

기도할 수 없거든 기도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 오라. 그분은 용서하신다. 그분은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아신다.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경건하고 선한 반면 동생은 나쁜 놈이었다. 형은 종종 동생에게 나쁜 생활을 버리라고 권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동생은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 들어가더니 마침내 어느날밤 피문은 옷을 입고 형의 방으로 뛰어 들어와 이렇게 외쳤다.

“나 좀 살려 주세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나는 죄를 저질렀어요.”
형은 사태를 짐작하고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 옷을 바꾸어 입자.”

그들이 옷을 갈아 입은 순간 경찰이 달려 들어와 피문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의심도 없이 체포했다. 법정에서 선 형은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이 일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범죄 현장에서부터 추적당하여 아직도 피문은 옷을 입은 채 체포되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그의 범행에 대해 털끝 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자 그는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형을 당하는 순간 이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다음날 동생은 편지를 받았다.

“이 순간 나는 네 죄를 위하여 네 피물은 옷을 입은 채 죽는다.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펴 기쁘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준 흰 옷을 입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동생은 후회막급이었다. 그는 사형집행을 중지시키려고 달려갔으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못된 짓을 하자고 그를 불러 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대신 죽은 형님의 깨끗한 옷을 물려받은 나는 전과 같이 악한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이 당신의 마음에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아신다. 당신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추악한 과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더라면 우리들은 오늘날 그를 성유다라고 불렀을 것이다.

고무 지우개가 잘못을 지우듯, 예수님은 죄를 지우신다.



천사들은 나사로라는 거지의 시체에 남아 있는 고름 주머니를 보고도 혐오감을 품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 갔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던 예수님은 까다롭게 굴지 않으신다.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집과 마음을 자기의 안식처로 삼으신다.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당신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들은 주홍같이 붉다. 빛의 근원이 보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면 여기에 상응하는 스펙트럼의 빛은 붉은

색이 된다. 성경에서 죄는 붉은 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결의 흰색을 당신은 언제라도 소유할 수 있다. 흰색은 모든 빛의 총합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인데, 당신은 그분을 언제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 길만이 당신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다른 모든 것은 말뿐이다.



우리들이 이 빛이 없이도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바라문(婆羅門)이 자기는 평생에 하나의 생명도 죽인 일이 없노라고 자랑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현미경 밑에 떨어뜨린 물 한 방울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바라문은 그가 물을 마실 때마다 수없이 많은 생물을 삼켰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는 자기 양심을 달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재빨리 생각해 냈다. 그는 현미경을 부셔 버렸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상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독교를 양심 밖으로 밀어낸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며, 우리 영혼의 상태에 역겨움을 느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다. 폰 진젠돌프 백작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남에게 보일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해드리려고 애쓸 때보다
 그분이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람을
 더 고맙게 여기신다. 그분은 그분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모여드는
 사람들보다는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즐겨하신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분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죄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옛날에 어떤 왕자가 굶주린 암호랑이를 만났다. 새끼 호랑이 세
 놈이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으나 젖이 나오지 않았다. 이 왕자는
 거룩한 분이어서 호랑이를 불쌍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 희생이
 가장 고귀한 덕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미 호랑이 옆에 누워 자기
 팔에 상처를 내어 호랑이가 피를 보고 식욕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임으로 어미 호랑이와 세 마리 새끼 호
 랑이는 살아났다.

호랑이를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호랑이에게는 모욕적인 처사다.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를 잡아먹지 않으나, 사람들은 식인종이 아
 니면서도 자기와 같은 사람을 죽인다.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한
 히틀러는 채식주의자였다.

인간은 살인하고 벼라별 잔악스러운 일과 죄를 다 저질렀다.
 인류는 죄를 먹고 살았으며 한 가지 죄를 빼놓고는 이미 모든 죄를
 다 저질렀는데 그 한 가지는 신을 죽이는 죄였다. 인간들은 서로를
 배신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미 호랑이 옆에 누웠다. 그분이 인류에게

오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잔인성과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그분의 몸을 먹어야 했고—그분 자신이 예언하셨던 대로—그분의 피를 마셔야 했다. 어미 호랑이가 예수님을 삼켰다.

그런데, 보라! 짐승 같은 인간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같은 미술가들은 인류의 죄를 그림과 조각에 담았고, 베토벤이나 바하 같은 음악가들은 그것을 음악에 실었으며, 인류는 신을 죽인 이 이야기를 천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했다. 기독교 문명은 이 범죄 사실 위에 이룩되었다. 호랑이들—보르기아들, 토르키마다들 같은(?),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에서 축출당하지 않은 천주교의 히틀러들—이 범죄 때문에 산다. 이 범죄 덕분에 호랑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모아 호사스럽게 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호랑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범죄가 마지막 범죄였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보고 깜짝 놀란 호랑이들은 양순한 호랑이가 되었다. 그들은 인류의 파괴자가 되는 대신 구원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콜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죄 사함까지 받는다고 쓰여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미합중국의 시민이라면 당신은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이 나라의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구원과 죄 사함이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 모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것에 유죄하다.”

역대기하 15장 1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는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의 장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꾸중을 받는다.

당신 나라의 훌륭한 사회적 정치적 기관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비슷한 기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됨으로써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책임이 있다. 당신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에켄이라는 일본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은 사람은 의와 생명과의 상관적 가치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 어떤 화학적 요소들은 모든 다른 요소와 화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특정한 요소들과만 화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만이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은 동물이나, 악마나, 식물이나, 광물은 될 수 없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둘 다 같은 질서, 즉 인격(personality)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나'와 '그'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일 나무에는 과일 나무만을 접붙일 수 있지 채소를 접붙일 수는 없다. 각기 다른 종류의 두 양 사이에서는 중간 종자를 얻을 수 있지만, 물소와 곤충 사이에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의 독특성을 반영한다. 성경에 인용된(사도행전 17:28) 어떤 알려지지 않은 희랍 시인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의 죄악에 그분이 끌렸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들을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나 이 일에 책임은 없다.

나는 못생겼거나, 불구이거나, 낮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이것을 피하지 못하며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나의 부모와 조상들은 다 죄인들이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죄'라는 히브리어는 '과녁에 빗나가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죄악성으로 인해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었을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죄악성은 내 편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구약 성서에는 유태인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자기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의 잔이 들어 있었다고 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 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 자신이 자기의 하인들에게 베냐민이나 다른 형들 모르게 베냐민의 자루에 감추라고 명령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은 과거에는 아주 이기적이어서 자기들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 버린 일이 있었던 형들의 마음에 단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무고하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와 같이 남아서 역경에 처한 동생을 도울 것인가를 보고 싶었다. 다행히도 그들은 요셉의 시험에 합격하여 좋은 소식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죄는 인생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생겨났으나 우리들 모두가 다 관계되어 있으며 뚫고 나오기에는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는 비극이다. 그것은 불구가 되었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타고난 것과 비슷한 비극이다. 우리들은

“내가 병균을 만들어 낸 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우리는 병과 싸운다. 우리의 병은 우리들에게 영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성은 우주적 의미가 있다. 죄는 우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서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진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천국에서도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었던 천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 천사는 여러 차례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지옥에서 놓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만한 선행을 하나라도 기억해 보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들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떤 부인이 “거지에게 양파를 하나 준 적이 있어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했다.

“선한 일이고 말고요.”

천사가 하늘 나라의 문서 보관소에 올라가서 부인에 관한 서류를 찾아보니 과연 양파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 그는 양파를 하나 갖고 지옥에 있는 부인에게 가서 말했다.

“이걸 손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쪽 끝을 붙잡을테니, 같이 천국으로 날아 올라갑시다.”

양파가 두 사람의 몸무게를 잘 지탱해 주어 부인은 천사와 같이 날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부인의 옷과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어떤 사람들은 부인에게 매달린 사람들의 발을 붙잡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 아래 달라붙어 하늘 나라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본 부인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양파의 껍질이 벗겨져 자기가 떨어질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그녀는 팔 굽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면서 말했다.

“당신들같이 선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죄인들은 지옥에 남아 있어야 해요.”

그 순간 양파 껍질이 툭 떨어졌다. 자신도 죄인인 그녀는 남들을 비판했었다. 이것으로 그녀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내적 죄악성의 원인을 찾지 말라.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나온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하라. 당신의 죄악성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다. 예수님께서서 구원을 내밀고 계신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병인 죄를 벗어나라.

미국의 쿠울리지 대통령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돌아오는 그에게 부인이 물었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반대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창조물을 다 사랑하신다. 나는 이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배웠다. 성 아이작은 매일 은 세상의 창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은 적어도 나만큼은 선한 분이시리라. 아무도 그분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창조물 가운데 인류가 있었는데, 이 인류에게 큰 재난이 발생했다. 인류가 죄에 빠졌던 것이다. 우리들 모두의 삶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름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힌다. 오늘날 세상에는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누구도 자기가 괴롭지 않은 사람은 남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 사람 깊숙

히에 뿌리 박고 있는 이상심리인데, 이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짐승에다 손을 얹었다. 어떤 종족에게는 이런 의식에 쓰이는 희생물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인 경우가 있었는데 대개는 노예였다. 이러한 의식의 살인은 원시적인 종족들 사이에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성경은 히브리 1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 제물은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도 안되고, 끝없는 후회로 우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서도 안된다. 과거의 당신의 죄가 사면이라는 구실로 성직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는 동기가 되어서도 안된다. 조용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당신은 도둑질을 함으로써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것이다. 죄악성이 당신의 본성이고, 우리들 모두의 본성이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코와 귀와 허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들이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여라. 죄도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성인들도 죄를 짓는다. 사도들도 죄를 지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테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돌 하나가 돌 위에 겹 놓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다가올 비극에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노예가 될 터인데도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죄인들다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들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코를 달고 살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죄를 지니고 살 것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점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히브리 10:2).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뒤에만 불이 달린 자동차와 같아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기가 차를 몰면서 얼마나 많은 닭과 개를 죽였는가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실은 이런 실상을 방지하려면 차 앞에 불이 달려 있어야 한다. 과거의 죄에 억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오늘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잘못된 계획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에 의해 지워질 수 있는데, 이 피에 대해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난 것이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피와는 다른 피였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아주 강한 본능 중의 하나인 전이(轉移)의 심리적 작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셨다.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해서 속죄양을 찾는 것은 악한 인간의 본능의 일부분이다. 당신이 물건을 집안 어디에다 잘못 두어서 찾을 수 없을 때에 그 잘못을 당신의 아내나 아이들에게 돌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물건은 아직 못 찾았지만 당신 아닌 다른 누군

가가 범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의자나 책상에 부딪혔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아프게 한 나쁜 의자를 때리면 아이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어 웃기 시작한다.

비양심적인 정치가들은 이 전이의 심리작용을 종종 이용하여 세상의 잘못된 모든 일의 탓을 유대인들에게, 흑인들에게, 백인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들에게, 왕에게, 반대 정당에게 돌린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가난의 속죄양들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는 60 년의 역사밖에 없다. 미 제국주의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가난이 있었고, 미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가난이 있었고,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가난이 있었고, 봉건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가난이 있었고, 노예제도와 초기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가난이 있었다. 사회주의 사회에도 가난은 있는데, 우리는 모두 속죄양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종 잘못 사용되는 전이의 심리작용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셨다. 사람들은 속죄양을 찾기는 하지만 속마음에는 속죄양에게 떠맡긴 죄의 구실이 사실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의식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히틀러 이전에도 반 유대주의는 있었고, 볼셰비키 이전에도 독재는 있었다. 한 사람이나 한 제도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겨난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속죄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창조물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진다. 나는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죄에 빠지리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책임도 진다. 다른 속죄양을 찾지 말고 너희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써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한다. 이제 우리는 속죄양을 찾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떠맡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된다.

하늘 나라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는 강력한 중재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

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나와 같은 죄수들 가운데에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을 재판한 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많이 있었다. 옛날에 법을 집행했던 판사와 검사들 자신이 어려운 감옥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은 모두 다시 자기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절대로 전처럼 판결을 내리지 않겠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들은 종이 위에 적힌 5년의 금고형이 철장 안에서 보내는 5년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아무도 감옥에서 '5년'을 보내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각기 감옥이고, 그 하루의 1분 1분이 각각 고통이다.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은 처벌의 문제에 대해 전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더욱 풍요하게 하였다. 솔로몬의 아가 3장 1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아가씨들아

나와서 뵈어라

이 즐거운 혼인날 솔로몬 왕은

그 어머니가 씌워 주신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구나

여기에서의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받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은 그분의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이신 그분이 인간의 본성과 결혼하시던 그 날에 씌워 드린 면류관이었다. 하나님은 늘 인간을 정의롭게 심판해 오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견지에서 본 심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삶을 인간의 견지에서 보게 되셨다. 그분은 멸시받는 민족의 가난한 집 아이로 태어나는 것, 배고픈 것, 머리 둘 곳도 갖지 못하는 것, 여자에게 유혹 당하는 것, 채찍에 맞는 것, 부당한 재판을 받는 것 등이 어떤 것임을 경험을 통해 아시게 되었다.

하나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은 큰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그분이 인간 생활에서 얻으신 경험의 은혜를 더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다 이해하시고 진심으로 그들을 다 용서하신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일반 관광객을 당혹케 하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으레히 기대할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두 곳 있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는 곳이 여러 곳 있고, 그분이 계셨었다는 무덤이 두 개 있고, 승천하신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이 여러 곳 있다. 이것은 한 복음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3시로, 다른 복음서는 6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성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골고다에서의 희생과 거기에 연관된 사건들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각기 다른 상황 아래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예배의식의 드라마와 우주적인 드라마의 표현이었다. 마치 저주받은 여리고 성이—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여러 번 무너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겟세마네와, 십자가에 못박힘과 승천을 통과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다. 이것은 돌도 없는 특이한 사건이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 구원에 대해 알게 하려고 다른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씨는 순교자들의 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교회 뒤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 우리 인간의 표준에 따르면 단연 ‘아니다!’이다. 자기 아들이 매맞고, 침뱀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어 주는 사람을 우리들은 의로운 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의를 한 옆으로 제쳐 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의해 그분의 의로우심을 안다. 우리의 판단 기준대로 하면 의롭다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사랑은 언제나 자유를 준다 'free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은 옛 에투루리아 말의 'froe', 고딕어로 'frion'에서 왔는데, 이 말들은 '사랑하다'라는 뜻이다. 마케도니아계 루마니아어에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없고, 이 말의 뜻으로 '원하다(to will)'란 말을 쓰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의지력을 가지고 당신을 원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분은 '사랑'이란 말의 최고의 의미로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갖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 골고다의 방법으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께 졌던 당신의 빛이 다 청산되었다.

당신의 죄가 다 갚아졌다.

아무리 자기의 죄를 마음 아프게 회개하는 사람이라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만큼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원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를 열망했던 것 만큼 기도를 위해, 시간이나 교회를 위해, 돈을 바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지 않다. 당신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건 내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죄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죄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까?

나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살인자에게, 동생을 위해 대신 죽으면서 동생에게 자기가 남기고 가는 흰 옷을 입고 앞으로는 흠 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라는 단 한 가지 부탁을 남기고 죽은 형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 살인자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얼마 후에 나는 그에게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의 죄사슬에서 풀리게 되어 기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내가 다른 죄인을 위해서 큰 형님 노릇을 하여 그를 위해 고통을 받을 기회가 생겨야만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에게 생겼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당신은 그런 특별한 기회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더 이상 당해야 할 의무가 없는 벌을 감당하기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 받는 자가 된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죄인은 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전의 살인자나, 거짓말쟁이나, 간음 행한 자나, 술주정뱅이나 그리고 무슨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이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회개를 통하여 그는 원칙대로 하면 고통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쁨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은 사람도 역시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마땅히 일어날 것이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자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태아와 원숭이의 태아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말은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 태아는 자라서 사람이 되고 다른 태아는 원숭이가 된다는 사실이 잘 증명하고 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과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아직도 당신의 생활에는 악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역시 죄인이며 그들의 운명은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나는 사과파이를 사랑한다.”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들의 ‘사랑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영원한’이란 말을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없는 저들은 버림받아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곧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감을 뜻할 것이다. 죽음은 온화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지옥이 글자 그대로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오랜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끝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부질없는 걱정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이 펄펄 끓는 물을 당신의 벌거벗은 몸에 단 한 번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죄를 범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죄에 대한 벌이 이것보다는 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찢린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 나온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준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1) 기도 :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2) 옆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에게 하신 말씀 :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3) 절망의 부르짖음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4)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 : “보라, 이분이 네 어머니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5) 요구의 말씀 : “내가 목마르다.”

(6) 확신의 말씀 : “이제 다 이루었다.”

(7) 다시 기도의 말씀 :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

전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여덟 번째 말씀이 있다. 자기를 창으로 찌르려는 군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친구여, 그보다 더 쉽게는 내 심장에 이르는 길이 없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는 고독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 당신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수세기에 걸친 성인들과, 천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다. 당신은 주님 자신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도 많이 사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삶을 짓누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름다운 연꽃은 진흙과 더러운 물 속에서 피어 나온다. 이 꽃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라야 잘 자라며, 숨막히는 가난이 왕노릇 하는 곳에서 만발하여, 냄새가 코를 찌르는 마당을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순결함으로 장식한다. 당신의 새로운 삶도 이러한 것이다. 비록 가난과 슬픔에 쫓기는 생활이라도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불운과 가난과 더러움에서 거룩함이 나올 것이다.

미국 텍사스의 한 경매장에 엘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예가 팔리기를 기다리며 전시되어 있었다. 젊은 감리교 목사인 페어뱅크와 어떤 불란서인 사이에 경쟁이 붙었다. 불란서인이 더 높은 값을 부르기를 주저하자 경매인은 엘사의 웃도리를 벗겨 가슴을 드러내며 말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렵니까?”

후에 그는 그녀의 치마를 들추어 알몸을 드러내 보였다.

“누가 이 훌륭한 물건의 주인이 되시렵니까?”

마침내 그녀를 산 페어뱅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 주려고 당신을 샀습니다.”

모든 정치적, 종교적 운동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당신에게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분은 가장 비싼 값인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주려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으셨다.

페어뱅크 목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는 자신의 반노예 제도 행위 때문에 17 년이나 감옥생활을 했다. 그러나 죽음과 환

경의 노예가 되어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누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미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덕과 내적 아름다움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왕국의 자녀들과 악한 왕국의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마태복음 13 : 40). 크리스천들은 죽은 후에도 자랄 것이다.

우리는 매우 높은 이상, 즉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환경에 의해 정해지고 말았다. 우리들 마음대로 사태를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나'이다. 종교적 명상과 사고를 하는 시간에 우리는 자신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꿈을 꾸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지상에서의 짧은 삶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불안에서 우리를 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영웅들 중의 하나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자기 편에 모셨기 때문에 옥과 시혼 같은 거인도 죽일 수 있었다. 당신도 당신을 에워싼 강대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당신의 침착함이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내 아들 미하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나 심심해 죽겠는데,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렴.”

“왜 조그만 내 머리로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해요. 머리가 큰 하나님보고 작은 어린애인 내 생각을 하시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의 이마에 주름살이 젖어 있지 않는 한 당신도 이마에 주름을 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머리이시라면 그분에게 생각을 맡겨라. 머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리는 걸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마태복음 10:19).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마태복음 24:44).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옳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릇된 일이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충격을 받기 위해 수동적이어야 한다. 혼자서 스스로 능동적이어서는 안된다.

루터는 저녁이면 때때로 창문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묻곤 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세계입니까 당신의 세계입니까? 당신의 교회입니까 제 교회입니까? 당신의 세계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당신이 돌보십시오. 나는 자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삶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주신다.



크리스천의 생활에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은 그 깊이가 매우
깊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
신이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마다에 그와 맞먹는 이익의 씨가 숨겨져
있다. 구약 성서에는 자기 형들이 들으면 화낼 꿈 이야기를 형들
에게 들려주는 실수를 범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실수
덕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크리스천은 자기 실수에도
자신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다음 세
상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태교의 하씨드 운동의 창안자였던 바알셈이 절망 속에서 우
울한 나날을 보내며 자기가 영생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말로 자신을 위로했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생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
아니라면 무엇이 영생이겠는가?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다. 만나가
당신의 양식이 될 터인데, 만나는 매일 거두어들여야 한다. 만나는

다음날을 위해 저장해 둘 수 없다.

예수님은 열병 같은 야망에서도 구원하신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알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남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사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나치게 야심을 채찍질하지 않도록, 자신의 분수에 넘게 자신을 혹사하지 않도록 당신을 가르쳐 주신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은 장점과 단점을 가진 자신을 받아들이고, 결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지 않으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알맞는 탐의 높이를 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생활의 복잡성에서 구원하신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즉 아주 단순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시다.

단순성의 적은 각기 다르고 한정된 기능을 가진 우리의 감각 기관이다. 장자는

“눈은 밝게 보는 데 방해가 되고, 귀는 미묘한 소리를 듣는 데 방해가 되고, 마음은 지혜에 방해가 되고, 모든 기관은 각기 자신의 기능에 방해가 된다. 인간이 이러한 방해의 요소들을 최대의 보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다.”

라고 했다.

사람의 참된 보물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즉 안과 밖의, 자신과 사물의,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만 활동하기

시작하는, 전체를 파악하는 인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셨을 때의 혼돈(tohu-vabohu)이다. 우리 정신의 모든 체계는 체계적이 아닌 창조의 반증이다. 하이젠베르크는 과학 분야에 자유 의지론의 요소를 소개하여 체계론과 결별하였다. 일은 우리의 체계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균형에서 오는 고통을 겪고 있다. 삶의 한 국면에 집중하게 되면 인간 경험의 전체는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은 크리스천이 되면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된다.

나이체는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어느 의미의 당이든 그 당의 당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첫째 조건이다. 모든 당원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눈은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 보게 된다. 신념이라는 것도 감옥이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모든 신념에서 해방되는 것이 힘의 일부이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초월하는 진리이다. 그분은 당신을 해방시켜 준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사물을 본다. 그들은, 모든 관점은 하나의 맹점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일단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관점과 다른 모든 관점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없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창문이 없거나 천정이 없다. 전체에 대한 직관력을 갖거나 관점을 바꾸어야만 우리는 방 전체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관점(견해)에서 구원하신다. 실체는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안다. 예수님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실체에 대한 자기인식, 즉 로고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한정된 시야에서 구원하신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음파가 있듯이, 인간이 볼 수 없는 광파도 있다. 우리는 3천 8백 앵그스트롬과 7천 6백 앵그스트롬 사이의 광파만을 볼 수 있다. 3천 8백 이하에는 자외선과 X선과 감마선이 있고, 7천 6백 이상에는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가 있다. 기구를 사용하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몇 배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원시(farsightedness : 희랍어 성서에는 교회의 장로들을 ‘presbyters’라고 했는데 이 말은 ‘멀리 보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내성(insight), 예리한 관찰(clear vision), 신비적 환상(mystical vision)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시력(beatific vision), 즉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우리는 눈을 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나 실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각의 환상에서 구원하신다.

한번은 해와 달이 싸웠다. 해가

“나뭇잎들은 초록색이야.”

라고 말하니까, 달은

“아니 은색이야.”

라고 고집했다.

달이

“사람들은 주로 잠만 자지.”

라고 말하니까, 해가

“아니, 사람들은 주로 움직이지.”

라고 주장했다.

달이

“그럼 지구가 왜 그렇게 조용하니?”

라고 물으니까, 해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니? 지구는 늘 시끄럽단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그들이 싸우고 있으려니까 바람이 나타났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들 싸우니? 나는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에도 불고,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에도 분단다. 낮에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에는 바로 해가 말한 대로야. 지구는 시끄럽고, 사람들은 모두들 움직이고, 나뭇잎들은 초록색이야. 그러나 밤이 되어 달이 떠 있을 때에는 모든 게 달라진단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고요함이 온 누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잎들은 은빛을 띠게 된단다. 그러다가 구름이 달을 가리게 되면 잎들은 검은 색이 되지. 해 너도, 달 너도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실제 전체를 보신다. 그분은 자신이 온전한 진리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전해 주신다.

그분은 완전한 진리이시다. 속에 지닌 진리가 죄 때문에 왜곡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죄인은 무언가 잘못된 것에 감정적으로 애착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에 그림자를 던진다.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었고 자신도 그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확실하게 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분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았으며, 좀더 부드럽게 대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은 적도 없었다. 그분의 생애는 그분의 옷처럼 짜여져 있었다. 그분은 후회스러운 추억에 얽매임이 없이 새로운 임무를 대할 수 있었으므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으며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속하게 될 교회는 그분의 성육신의 연속이다. 당신은 그분이 가지셨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진리를 갖지 못한 당신의 생애는 실패이며, 당신이 천재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인류에게 끼친 가장 큰 해독은 자기들의 한정된 견해를 교묘한 기술로 선전하거나 독재적인 법률로 강제 집행시킨 천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인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 이성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준다. 루터는 말한다.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성의 눈을 뽑아 버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야 하며,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자처럼 그것을 죽이기까지 하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지성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분야에서 방해거리만 될 경우에는, 지성을 희생시킴으로써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오류를 피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를 터투리안의 경고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관습(custom)이라 부르지 않고 진리라고 불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관습을 예배한다. 크리스천은 소수의 편에 속하거나 혼자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에머슨의 경고인데, 이것은 첫 번째 경고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진리와 평정 중 하나를 택하라고 명하신다. 누구도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예수님은 증오심에서 구하신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수완에 대해 쓴 기록에서 그분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게 대해 단 한 마디의 나쁜 말이나 나쁜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단 하나의 예외가 유다의 경우인데,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사도들은 어떤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체에는 절도가 있다.

당신은 증오심에서도 구원받을 것이다.

왜 당신이 사람을 증오해야 하겠는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당신은 관용과 정의로 그를 대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주 복잡한 분이어서,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계신다. 히브리어에는 '얼굴'이라는 단어의 단수형이 없고 복수형인 'panim'이란 말만 있는데 '얼굴들'이란 뜻이다. '-im'으로 끝나는 히브리어는 다 복수를 뜻한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사용된 언어인 히브리어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 '천주교인', '도둑놈', '사기꾼', '성자', '개신교인', '반동분자', '혁명가' 등의 딱지는 다 그릇된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다른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딱지를 붙일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의 합성체이다.

'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의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자연계에서는 철만이 발견되는 일은 없고 언제나 다른 것과 섞여서 발견된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아주 복잡한 존재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의 성격에는 반감을 가지지만 그의 외모에는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 아주 악한 심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사람과의 관계는 그의 지적, 육체적, 영적 자질의 각기 다른 면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예수, 고난 받으시는 예수, 싸우시는 예수, 면류관을 쓰신 예수, 예수님 전체에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증언을 거부하는 피고 앞에 선 재판관과 같아서 가정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원과 같은 분이라고 정의했는데 원의 중심점은 어느 곳에나 있으며 그 둘레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기로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 기술문명과 텔레비전의 기적으로 인해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매우 넓은 둘레를 가진 원의 중심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전혀 한계선을 가지지 않으시며 모든 곳에 중심점이 되시는 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은 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중심점을 가지신다면 나는 내가 그 중심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바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보기로 하겠다. 잠언 20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듣는 귀를 만드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달하려면 당신 자신의 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귀의 굴곡과 언덕과 골짜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며, 소리의 근원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대강 알 수 있다. 모든 회전부와 주름 덕분에 소리와 울림을 감지할 수 있다. 위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의 귀에

있는 주름들에 생기는 작은 울림이 아래나 뒤에서 오는 소리의 울림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소리가 위에서 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면 당신의 오른쪽 귀가 왼편 귀에 한 발 앞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민들레처럼 미묘하고 완전한 비행체 혹은 낙하산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항공역학 부문의 과학자들이 땅벌(bumblebee)은 날을 수 없다고 계산해 냈지만 땅벌들은 항공역학 전문가들의 계산에는 아랑곳 없이 날고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눈이 멀었다는 뜻일 뿐이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이 아니고, 시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무신론은 진리에 대한 지식의 결여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더듬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 분이신가?

나면서부터 눈먼 어떤 사람이 우유를 한 잔 달래가지고 물었다.

“우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유는 흰색의 액체이지요.”

“흰색이란 무슨 뜻인가요?”

“흰색은 백조의 색이지요.”

“백조가 뭐예요?”

“백조란 목이 굽은 새지요.”

“굽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팔굽을 굽힐 테니 만져 보세요. 그러면 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거예요.”

눈먼 사람이 그 사람의 굽힌 팔굽을 만져 보고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우유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책에서는, 성경책에서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눈먼 사람이 우유의 모습을 굽힌 팔굽에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짓으로 보이듯이 말들이 당신에게는 터무니없이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정되고 선천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눈먼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분을 아주 비슷하게 알 수 있을 뿐이다. 말은 읽고 잊어 버려라. 그리고 귀와 민들레와 땅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영어의 ‘God’이나 이에 해당하는 독일어와 스칸디나비아어는 산스크리트의 ‘Hathu’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란 뜻이다. 하나님보다 더 제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 말의 파생어인 ‘Huta’는 ‘기원을 받으시는 분’이란 뜻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기원을 더 잘 들어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Deity’란 말은 산스크리트의 ‘Deia’란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빛나다’의 뜻이다. 그분은 해처럼 빛나시며 당신도 빛나게 해주신다. 믿고 그분의 팔에 당신을 맡겨 버려라.

어떤 사람은 구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푼다. 삶이라고 하는 큰 게임에서 무한적 존재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포괄하신다. 그분은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도 되고 받는 분도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 번 즐기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당신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큰 슬픔을 하소연했다. 크리스천이 사도신경을 암송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슬픔에 잠겼던 사람이 말했다.

“됐습니다. 크게 위로를 받았습시다.”

내가 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리차드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님도 되시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해주신다.

그분은 무엇인가? 불어에 이런 말이 있다.

“Un Dieu defini est un Dieu fini.” (정의가 내려진 신은 당신과는 끝난 신이다.)

우리는 원자의 구조도 모르면서 거룩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메바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을 단순히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캄튼(A. Compton)이 이렇게 말했다.

“지적인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가설은 다른 어떤 가설보다도 이 우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된다.”

세상이 다 아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 종교는 보다 더 높으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깊은 신념 안에 존재한다.”

아인슈타인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을 수 있었다면, 당신도 믿을 수 있다. 당신은 그분을 믿어야 할 존재이지 그분을 해부할 존재는 아닌 것이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과학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발명품을 쓰면서 산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발명품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발명가도 알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왔을 때, 그들은 마리아와 같이 있는 그분을 보았다. 골고다를 찾아갔던 사람들도 마리아와 같이 있는 예수를 보았고, 최초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도 마리아와 함께 모였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드님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으며,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지 않고 그분을 찬양할 수 없다.

인간들은 서로 싸우느라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게 된다.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이것이었다. 마리아의 역할을 지나

치게 과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에서 그녀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 사람들이 생겨났다.

어떤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이 똑같은 시간에 죽어 둘 다 천국엘 갔다고 한다. 천주교인은 즉시 마리아 앞에 절을 하고 그녀가 입은 옷단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충성스럽게 나를 섬겼어요. 이제 내 아들에게 당신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개신교인은 하늘에 도착하자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다.

“내 어머님께 당신을 소개해 주겠소. 당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어머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구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마리아는 그분의 창조물 중의 하나에 불과하나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분이 맡은 역할이 있었다.

시편 22편 9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주신 분.”

성경에서 사람이 여인의 자궁에서 나온다고 언급된 부분은 이곳 한 곳뿐이며, 신구약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온다고 표현되고 있다.

예수님은 여인(the woman)에게서 태어난 분이다. (여기에서의 여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haishah’로 그 여인의 씨에서 뱀의 머리를 상케 할 자가 나오리라고 예언된 특별한 역사적 임무를 띤 여인이다.)

예수님은 그분을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아마

너무 평범한 명칭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분은 언제나 그분을 ‘여인’이라 불러서 그분이 성서에 예언된 그 여인이며, 그 광휘를 한 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인임을 암시하였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침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빛나며

깃발을 앞장 세우고 내닫는 군대같이

보이는 저 여인은 누구인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자기의 신랑이 곧 자기의 아기인 그 여인이 곧 아름다운 그분 이시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분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으나 그렇게도 많은 인간의 고통과 배신 때문에 더욱더 슬퍼하고 계신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뼈이다. 성모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라면 우리의 어머니이시 기도 하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머리의 어머니는 몸의 어머니도 되신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모의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도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 당신을 볼 때, 곧 예수님을 본다. 어머니가 씻어 주기에 너무 더러운 아기, 아픈 곳을 키스로 달래 주기에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아기, 너무 고집스럽고 욕심쟁이여서 사랑해 줄 수 없는 아기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존귀케 하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그분은 갈보리에서 아드님 가까이 계셨듯 모든 십자가, 모든 제단에 가까이 계신다.

나는 단지 정교회나 천주교에 계신 분들이 왜 시편 저자의 말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까 의아스럽게 여길 뿐이다(시편 71 : 16).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성모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천한 종에 불과한 자기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켈시던 종교회의(the Council of Chalcedon)가 예수님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이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는 점을 인정치 않았던 네스토리우스 학파에 반대하여 마리아에게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명칭은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라면 요셉은 하나님의 양부가 되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수많은 아저씨와 사촌들에 둘러싸인 하나님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마리아에 대한 양쪽의 태도에는 다 모순이 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채찍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사람만큼 고통받는 예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크리스천들도 있지만,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지고의 기쁨으로 삼는 크리스천들도 있다.

스가랴 1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다.

레바논아, 성문을 열어라
네 송백(松柏)을 불살라 버리리라.

얼마나 엄청난 명령인가? 불이 나서 가까이까지 퍼져 오는 것을 보거든 당신의 집과 재산을 다 태우도록 대문을 열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고통을 향해, 아주 심한 고통까지도 환영하여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기쁘게 문을 열고 고통을 친구로 맞아들인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에게 임박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여기에서의 장막(tabernacle)은 자기의 몸을 가리킨 말이다. 그런데 그는 장막을 벗지 않았다. 즉 자살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머리를 아래로 하고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기꺼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던 자기의 십자가형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자기 자신의 행위로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크리스천의 태도이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의 의지로 맞이한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에 우리를 나쁘게 평하는 말에도 흥분하지 않는다. 우리는 크리스천을 욕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한다. 침은 하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뱉은 사람에게 돌아와 그를 더럽힌다. 크리스천을 비난하는 사람이 크

리스천에게 흠을 던지지만 흠은 바람에 불려 던진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다. 의로운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이 해를 입히려 해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 해는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간다.

크리스천에게는 칭찬을 받는 것이나 모욕을 받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어떤 사람이 성 마카리우스를 찾아와 물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자가 대답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무덤 하나 하나 앞에 서서 죽은 사람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시오.”

그 사람은 이 말을 의아하게 여겼으나 어쨌든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카리우스는 그를 다시 묘지에 보내면서 이번에는 죽은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하라고 일렀다. 그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물었다.

“당신의 모욕적인 말에 죽은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까?”

“아니오.”

“칭찬의 말을 듣고는 기뻐합니까?”

“아니오.”

마카리우스가 의도했던 교훈을 설파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의 의미요.”

우리는 어떤 거짓된 비난에서 오는 고난도 받아들인다. 내 아내 사비나의 의견을 들어 보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가해진 고통은 사랑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사랑의 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십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녀 잔 다르크는 마녀로 화형을 당했다. 성 토마스 무어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다. 본회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에

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의식을 빙자한 살인자, 나치스의 협력자, 도둑놈 등등의 누명을 쓰고 극심한 학대와 고통을 겪고 있다.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자기 나름의 감옥에 갇히는 셈이다. 솔로몬의 아가는, 크리스천은 봉인된 셈이요, 문닫힌 정원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를 찾아보기란 옥에 갇힌 죄수를 찾아보기 만큼 힘들다. 노아는 그를 구원한 방주 속에 갇혔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신랑과 함께 신방에 갇혔다. 닫힌 문 뒤에서가 아니면 당신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임한다. 그는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육에 대해, 악마에 대해 죽는다.



나는 고난 중의 크리스천들이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아 왔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연주를 하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었다. 그

러나 음악을 듣지 못하는 한 귀머거리는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악을 듣는다. 그들은 춤을 추며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도 상관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넓은 바다를 이해할 수 없듯이 고난 당하는 크리스천들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다.

크리스천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시편 4편의 제목을 히브리어로는 ‘폐배당했을 때 기뻐하는 자의 노래’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기쁨에는 많은 눈물이 섞여 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이 당나귀에 몸을 싣고 제일 느린 짐승의 속도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심에 몹시 답답해 했다. 그분은 자신의 속도를 몸소 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가시는 길을 보다 멋있게 꾸미려고 했다. 그들이 차기들의 옷을 당나귀 위에 깔고, 길 위에 퍼는 통에 당나귀의 발에 옷이 감기고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도가 더욱더 느려졌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 대신 살인자인 바라바를 택했기 때문에 고통 받는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나님에게 양초를

얻어 내려는 사람과 같다. 당신은 일단 찾던 물건을 찾으면 초는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가축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려 든다. 당신은 우유 때문에, 치즈 때문에, 당신의 필요 때문에 소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영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신성을 추앙하고 그분의 성전 제단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도 그분이 고통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때에는 그분의 모습을 알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성녀 잔 다르크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려 손길을 뻗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당시 불란서의 왕이었던 샤를르 2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왕은 그녀를 석방시키려는 노력을 털끝만큼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 받았고, 누구에게서도 손톱만큼의 동정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런데 그녀를 도울 수 있었던 왕과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했었다. 나치스와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현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크리스천들은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어야 하지만 특히 동정의 눈물로 그리스도를 위로해야 한다.

성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로해야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분의 마음은 너무 부드러워 당신이 울면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도 당신이 고요하게 당신과 같이 쉬도록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모셔 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슬픈 마음으로 당신을 떠나가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마음과 미소로 자기를 영접하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 언제 당신은 당신의 걱정거리를 그분에게 감추고 기쁘게 그분을 위해 고통을 받겠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성 테레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의 십자가상을 베개 위에 올려 놓고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비참한 세상에 사시는 30 하고도 3 년 동안에 충분히 애쓰시고 우셨어요. 그러니 오늘은 쉬실 차례예요. 이제는 제가 고통 받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드립시다. 자신을 희생하여 그분께 영혼을 바칩시다.”

성 테레사는 한 수녀가 다른 수녀들에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 불평을 너무 많이 한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그 수녀가 말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저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그분께만 제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테레사가 대답했다.

“하나님께 눈물을! 절대로 그래서는 안돼요. 그분이 만드신 사람들에게보다도 더욱더 그분에게는 슬픈 얼굴을 보여서는 안 돼요.”

†

†

†

마지막 심판날에는 누구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고,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살인자의 칼에 찔린 성 마리아 고레티는 죽어 가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낙원에 가서 나를 찌른 그 사람과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감옥에서 크리스천이 된 이 살인자는 바로 이 성녀의 시복식에 참석했었다.

크리스천들은 원수의 손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원수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눈앞에 계신 죄없이 고통을 받으신 위대하신 그분, 예수를 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또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투쟁가가 될 수 있다. 위대한 투쟁을 벌인 마틴 루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중단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랑과 진리의 적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크리스천은 절대로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리저리 세 걸음 밖에는 옮겨 놓을 수 없는 좁은 독방에 갇혔던 크리스천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한 번도 세 걸음을 옮기지 않고 꼭 두 걸음만 옮겼다. 그가—그를 가둔 사람들이 아니라—그의 해야 할 일을 결정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투쟁정신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분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겿세마네 동산에 많은 무리를 보낼 것을 아셨다.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하리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던 그분은 스스로 도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뿐이 아니다. 그분은 아주 공격적이기도 했는데,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무장을 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포어는 시저에게 칼을 찌르면서 한 부르 터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Sic semper tyrannis.”(독재자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 오신 정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물려주신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에게 남겨 주신 책이라곤 구약성서 한 권밖에 없는데, 이 책은 영웅들의 업적과 투쟁을 노래한 서사시로 가득 찬 책이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을 당장 뽑아 버리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선한 자들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권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싸움을 쉬신다는 뜻이 아니다. 사수는 목표물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총을 겨누는 법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도 어찌지 못하는 죄의 세력에 쫓김을 받는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적의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물 놓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사탄이 그의 전도에 방해물 놓는다고 한 말씀 중의 사탄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 이라기보다는 사탄과 죄에 대한 싸움이어야 하는데, 죄란 근본적으로 영혼의 오점이 아니고 친구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권세와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에 대한 싸움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만심과 싸워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젖은 발은 그 발이 더러워서 씻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마른 발은 이제 깨끗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저 씻김을 받은 죄인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성 요한은 말씀하셨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어라. 그러면 너는 사랑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섬기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만으로도 충분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예언되지 않은 고통까지도 일부러 당하셨는데—예를 들어 가시 면류관—그 이유는 당신이 가장 무서운 죄를, 이때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도의 희생이 당신을 그런 모든 죄에서 구해 주기도 남음이 있다는 확신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분이 힘자라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셨으니, 당신도 힘자라는 데까지 자만심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 지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한다. 자기가 받은 명령대로만 일한 하인을 예수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 했을 때, 그분은 겸손하게 타고 갈 나귀를 달라고 하셨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 여객기로 날아가고 차로 달린다. 당신의 시야를 좁히지 말라. 그분을 확대하라. 즉 그분을 보다 크게 만들어라. 그분을 항상 당나귀 위에 앉은 분으로만, 작은 신앙고백의, 한 민족의, 한 나라의, 한 종교적 견해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을 천막으로 만들라고 명하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상을 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왕궁같이 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상을 행하셨다.



크리스천은 싸우면서도 부드럽고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서 가장 높이 칭찬하신 것은 아무 실용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행위, 시적 태도였다. 결국 순교자들의 고통이 무슨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영리한 사람들이었더라면 그들은 미리 예방책을

써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희생에는 실제적 용도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다. 예수님은 아름다움을 즐겨 하신다.

당신의 싸움을 아름답게 싸워 나가라.



그리스도의 배는 수력학과는 반대로 운항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싸워라. 그 배는 물이 가득 차 올라도 뜰 수 있다(누가복음 8:23). 그 정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셔도 달라질 게 없었다. 물이 가득 찬 배는 바다가 잠잠해졌다 해도 가라앉는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항상 기적적인 일이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가장 큰 물고기부터 잡도록 해야겠다. 초대 교회에서 사용된 예수님의 상징은 물고기이며, 희랍어로는 'Ichty's'였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해당하는 희랍어의 머리글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위대한 물고기부터 잡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물고기들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곳에서 면류관을 받으셨다. 그분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었다. 이제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신다. 히브리어와 희랍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되어 있다. 그분은 우리와 자신과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면류관을 받으시면 우리도 면류관을 받는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그는 웃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분은 승리를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 이삭이다. 그분은 웃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취하신다. 때로 우리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과 같이 이상스러운 이름일 경우에도.

아무리 죄로 더럽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실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면류관을 쓴 사람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아브라함', '하나님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의 이름 중 하나가 '하나님 리차드'이다. 교부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이름을 다 갖고 계시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원하신다.

내가 처음 신약 성서를 통독했을 때, 그 책은 순 영터리같이 느껴졌다. 예수와 함께 못박히고 장사되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도저히 사실같이 들리지 않았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못박히지 않았다. 예수님은 두 도둑과

운데에 끼어 못박히셨다는 이야기가 전부였고 바울이 무덤에 묻혔을 리가 만무였다.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사람이 이런 경험에 대하여 편지를 쓸 수는 없는 법이다. 그가 자신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말했을 그 당시 실은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새빨간 거짓말이 담겨진 책을 어찌하여 정신이 멀쩡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발견했다.

“*Actiones et passiones sunt suppositorum.*” (행위와 열정은 사람에게 예속된다.)

배고픈 것은 위가 아니라 나다. 내가 걷는 것이지, 내 다리가 걷는 것이 아니며, 내가 생각하지 내 두뇌가 생각하지 않는다. 내 몸의 모든 지체는 나이다.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이다. 내가 죽는다. 모든 행위와 열정에는 그 사람 전체가 관련된다.

크리스천들은 하나의 큰 몸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당신이 내 정쟁이를 발로 차면 내가 아픔을 느끼듯, 그분의 지체 되는 우리 하나 하나에게 가해진 행위에 따라 그분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의무를 받기도 하신다. 내가 어떤 신비스러운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크리스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지 말기 바란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들이다.”

이 말을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그의 육체의 지체들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무엇인들 주석가가 영적으로 설명해 버리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

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의 몸과, 육과, 뼈의 지체라”(에베소 5 : 30).

내가 그분의 몸의 일부이다. 나는 이미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돌아올 것이다. 그분은 나의 매일의 생활 속에 함께 계신다. 과연 루터의 말이 옳았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이다.”

나는 나를 그분과 동일시하고, 그분은 자신을 나와 동일시하신다. 우리의 종교는 대명사의 구별이 없는 종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을 받은 것을 아는 크리스천들은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죄 그 자체를 빼놓으면 영혼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이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침착할 수 있다. 당신은 늙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당신 자신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당신이 많은 나이(great age)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이를 위대하게(great)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쓴 당신은 성 베르나르의 말을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은 소문이나 칭찬이나 비방이나 속덕공론이나 논쟁에 귀를 닫고, 험구나 증얼거림이나 남의 홍보는 일에는 입을 다물라.”



면류관을 받은 믿는 이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정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탱된다.

시베리아의 한 감옥소에서 천주교 수녀들이 그들의 수녀복을 벗고 죄수복을 입으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그들은 그 제복이 적 그리스도의 표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수들은 그들을 목욕실에 몰아 넣고, 그들이 목욕하는 동안 수녀복을 제복과 바꾸어 놓았다. 그래도 그들이 제복을 거부하자 영하 40°의 밖으로 끌고 나가 앉아 있게 하였다. 수녀들은 꼼짝도 않고 기도를 시작했다. 감옥의 여자 의사는 트로츠키 신봉자로 무신론자였는데, 그녀는 수녀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자살을 감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수녀들은 이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기도를 계속했다. 남자 간수들이 다가와도 60명의 수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감옥의 소장은 청년 공산당원들을 데려다가 억지로 이들에게 옷을 입힐까 생각해 보았으나 그들이 이 수녀들의 용기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이제 덜덜 떨던 수녀들은 추위로 새파랗게 얼어 버렸다. 그들은 여전히 알몸인 채 눈발위를 지나 감방으로 집어넣어 졌다. 육군 소령인 소장은

“나치스들과 싸우는 것이 이 수녀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다.”

라고 말했다.

수녀들은 소장 앞을 지날 때 그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라고 빌었다. 몇몇 수녀들은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어 다른 수녀들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눈발 위를 걸으며 옛 그레고리안 곡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렀다. 수녀들 중 한 사람도 병난 사람이 없었다. 감방에 들어가서 그들은 다른 죄수들이 주는 누더기를 얻어 걸쳤다. 그들은 바깥 추위 속에 여섯 시간이나 있었다.

다른 한 여의사가 처음의 여의사인 브라버만에게 물었다.

“수녀들 중 한 사람도 병이 나지 않은 사실을 의사로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신론자인 브라버만이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노래를 부름으로 수녀들 자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은 당신은 결과를 계산하는 불안에서 해방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이 당신의 새 마음에 쓰여진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마음의 충동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의 아버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아버님도 되시며 당신 생애의 극히 사소한 일까지도 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안다.

신명기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인 유태인들에게 유월절이 되면 양을 먹으라고 명하신다. 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다. 석쇠에 구울 수도 있고, 기름에

튀길 수도 있고, 볶을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화덕에 구운 양고기가 최고인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심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셔서 양고기가 맛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 것까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마치 큰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는 급사장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너희는 그 고기를 구워 먹어라.”



당신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

성경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 속의 책의 제목은 사람들이 붙인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즉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좋은 밀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씨를 뿌린 비유가 있다. 끝에 가서 가라지는 불살라지고 좋은 밀은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데, 천사들이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한다. 성경에 붙인 제목은 ‘가라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도 또 목자를 잘 따르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과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에다 ‘잃은 양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였다.

또 한 비유는 선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곁에 남아 있으나, 다른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집을 떠나 그것을

다 낭비한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데 왜 ‘선한 아버지의 비유’ 혹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비유’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제목들은 잘못 붙여진 것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영혼과 정신이 예뻐로 깨끗하게 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받은 당신은 사랑에 가득 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사랑만 하는 데에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셨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다.

당신이 이런 경지에 도달했거든, 거기에 머물도록 하라.

자연을 몹시 사랑하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편안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산보를 나가서 어떤 언덕에 오르게 되었다. 아름다움에 감동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보세요! 저 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에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내게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냐?”

뒤돌아보지 말라! 당신이 올라온 계곡을 내려다보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쓴 당신은 정상에 다다랐다. 그곳에 머물러 위를 쳐다보라.



당신이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하루하루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요한복음 1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도 예수님은 그 율법대로 처형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처형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결정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자신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 우리는 영화를 보는 관객과 같다. 언젠가 한번 나는 영화에서 죄없는 사람이 큰 위협에 처한 것을 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나 자신도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실은 이 사람의 운명은 영화관의 기사가 돌리고 있는 필름 위에 이미 오래 전에 예정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혜택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자유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임으로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워 놓으신 계획 속의 모든 것에 동의한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완수해 나갈 뿐이다.

불이 그 속에 던져진 모든 것을 불로 변화시키듯,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만히 오는 모든 이들에게 신성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의지와 개인의 의지가 그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서 여전히 의지는 두 개의 의지로 남는다.



크리스천들은 죽음이라는 형태를 환영한다.

내 몸은 여러 가지 형태를 거쳐 왔다. 태아, 유아, 어린이, 성인, 노인의 형태 등. 내 몸은 때로는 건강했고, 때로는 병들었었다. 내 몸이 시체의 형태를 취하게 되리라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몸이 아니기에 나는 남을 것이다. 나는 불멸이다.

아모스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한계가 있으신 모양이다. 그분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수는 없었던지, 이 민족은 아직도 존재하다.



죽는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문을 통과하여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면류관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들을 닫으시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위에 있는 문은 닫지 않으실 것이다.



면류관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에 당신은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런 만찬에 한 번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생의 고통을 당해도 좋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이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므로, 머리와 몸 전체를 가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다. 2천 년 전 갈보리에서 이 세상의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으로 자신의 신비적 몸을 희생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만찬 테이블 위에 상징으로 나타난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이다. 우리 몸 또한 빵과 포도주에 들어 있다. 모든 시대에 걸친,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가장 약한 형제들까지도—마찬가지이다.

머리 되시는 그분의 희생에서(성만찬으로 기념되는) 교회는 자신과 자신의 소유 전부를 희생하는 것을 배운다.

성만찬을 주재하는 분이나 받는 분들이나 모두 자신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성 싸이프리안(St. Cyprian)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해당하는 우리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

주님의 희생이 요구하는 당연한 신성함으로 그 희생을 기념할 수 없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성만찬보다 더 나은 것을 모르시고, 더 귀한 것을 하실 수도 없다.”

천주교와 정교회가 한편이 되고 개신교가 다른 한편이 되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수세기에 걸쳐 논쟁을 펴 왔다. 차라리 우리가 변질되어, 우리의 몸이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른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 의식에 힘입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구원하는, 고난받는, 봉사하는, 투쟁하는 면류관을 쓰고 예수를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열정을 향하여,

“내가 나를 수백만 번 정복한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길고 힘든 싸움을 해서라도 결국은 내가 너를 꺾어 버리고야 말겠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다. 기독교의 정수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상뿐 아니라 길이시다.



당신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있을 수 없다. 이 물음은 잘못된 물음이기 때문에 답도 있을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물에 상당한 일을 할 수는 없다. 당신의 눈을 위해 얼마나 드릴 수 있겠는가? 크리스천은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셀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았으므로, 이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신 분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분이 승리도 주실 것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일시적인 부는 구해서 얻지만, 영적인 선물은 포기함으로 얻는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크리스천은 달성코자 하는 스스로의 목표가 없다. 그는 수동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도록 맡겨 버리기 때문에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성화(聖化)된다. 야심에 의해 충동질을 받을 때에만 긴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의 성화가 당신의 야심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야심이다. 당신은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있음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 되면 당신 생애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음악가들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의 줄을 고른다. 당신도 다른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게 될 것이다.



목동인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부름을 받고 들어가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게 되었다. 온 조정의 신하가 다 모인 자리에서 다윗이 왕의 곁에 있는 하프를 연주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대답했다.

“소용없는 일이니라. 나를 위해 그걸 만든 자에게 내가 속았느니라. 누가 연주를 해도 듣기 싫은 불협화음만 나는구나.”

다윗이 계속 간청했다. 그의 손가락이 하프에 닿자마자 악기가 기뻐 노래하다가 울다가 다시 기쁘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가 연주한 음악이 너무도 황홀해서 그가 연주를 끝내자 모두들 눈물에 젖어 있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이 모두들 이 악기를 연주하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너만은 연주할 수 있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하프에다 자기들의 노래를 실으려 했기 때문에 하프가 그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만 저는 이 하프에 하프 자신의 노래를 실었습니다. 제가 이 하프에게 새들은 가지에 와 앉아 지저귀고, 나뭇잎은 햇빛에 빛나던 어린 시절을 상기시켰을 때 왕께서는 이 하프가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느날 사람들이 숲에 와서 그 나무를 잘랐을 때 그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동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에서 하프가 탄생했고, 이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프는 자기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하프에 자기네들의 노래를 실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몹시 추한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노래를, 그분의 영원하신 영광의 노래를, 말구유에 아기로 탄생하신 그분의 겸손의 노래를, 그분이 겪으신 슬픔의 노래를, 갈보리의 노래를,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노래를 연주할 몇몇 선택된 이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분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악기의 줄을 고르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악마가 하나님을 아주 훌륭하게 흉내낼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 악마가 심은 가라지가 좋은 밀과 너무도 흡사해서 선택된 사람들도 그 둘을 바로 구별할 수 있으리라 믿기가 어려웠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크리스천들의 생활방식에 관한 규칙을 세우는 크리스천의 교제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 당신은 정직하게 행동하고도 속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은 성도들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옛 성인들과도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분들은 당신의 믿음을 인해 지금도 하늘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당신은 지금 당신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시대에 걸친 성인들과 교제할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일단 그분의 제자가 되면, 다른 제자들을 찾도록 하라.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규율을 세우는 법칙이 있으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고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역사를 통해 수차에 걸친 변화를 겪어 왔다. 교회는 기본적인 생활규모의 뼈대를 제외하고는, 당신의 신앙생활을 위한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인 당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내리도록 당신에게 일임하고 있다. 각기 다른 개개인의 경우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거짓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참 교사는 여러 가지 경우에

“나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



당신은 상당히 큰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도덕적 계시라는 것이 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조차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일찍 성공했다더라면 인류는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덕을 입었을까!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신은 이미 잘 다져진 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예외가 있을 경우까지를 포함한 위대한 생활규범의 궤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 자신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이 규범을 참고 하도록 하라.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당신 교회의 목사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 †
†

교회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
이 성인들에 얽힌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겠는데, 어떤 이야기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외적인 인물들을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 †
†

총독이 순교자 성 저스틴에게 물었다.
“소위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은 참된 지혜의 소유 자들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믿고 있소. 만약 당신이 지금 형벌을 받고 처형된다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믿고 있소?”
저스틴이 대답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 내면 그곳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는 이런 확신으로 꼭차 있습니다.”
총독이 다시 위협했으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열렬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 †



대성자 안토니라고 알려진 분은 교회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들을 들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마태복음 19 : 21).

안토니는 마치 자기 혼자만이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복음서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했다. 안토니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15만 평의 땅과 3백 마리의 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다. 그는 자기 누이까지 권유하여 누이는 수녀가 되고 자신은 수도사가 되었다.

빵과 소금과 물을 하루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이 그의 식사의 전부였다. 그는 산꼭대기에 있는 폐허가 된 성에서 살았다. 여섯 달마다 그가 먹을 빵이 산 위로 운반되었다.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20 년을 살았다.

그는 기도로 매일 밤을 지새웠다. 한번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왜 너는 참 빛의 광휘에 대한 나의 명상을 방해하느냐?”

20 년 동안의 명상의 생활을 마치고 그는 다시 속세로 돌아왔다. 맥시민의 핍박 기간 중에 그는 갇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우리 시대에서는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도 이런 일을 생각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수단에 있는 광산에서 일하도록 판결을 받은 죄수들도 찾아갔다.

그는 성 아타나시우스를 그를 쫓는 자들로부터 숨겨 주었다.

한번은 이 성자가 환상 속에서 지구가 악마의 울무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누구도 이 울무를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음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울무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느냐고 여쭙어 보았는데 그가 받은 대답은 단 한 마디였다—점손.

† †
†

홀아버인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었다. 그에게는 외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도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를 돌보아 드리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그녀는 수도승들 사이에 끼게 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탁월한 요리와 빨래 솜씨로 다른 수도사를 매료시켰고, 그녀를 남자라고 믿는 수도원장도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기에 이르렀다. 어느날 수도원장은 그녀를 다른 두 수도사와 함께 장을 보러 보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늘 묵곤 하던 여관의 주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어떤 군인과 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되었으나 그 군인은 결혼을 거절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남자에게 간청을 했다.

“저는 어쩌면 좋아요. 아버님이 아시면 절 죽일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 미남수도사가 당신을 강간했다고 말해 보시오.”

그래서 그녀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했다.

테오도라가(이것이 그 수도사의 이름이었다) 읍에서 돌아오자 여관 주인에게서 이미 이야기를 들은 원장은 호령을 하며 그녀를 때렸다.

“어떻게 우리 수도원에 이런 수치를 가져왔느냐?”

테오도라는 다른 수도사들 중 한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누구든 발각이 되면 수도원에서 쫓겨 나게 되고, 그러면 더 나쁜 죄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원장의 발 아래 엎드려 빌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장은 그녀를 쫓아냈고, 그녀는 수도원 대문 앞에서 거지처럼 살며 지나다니는 모든 수도사들에게 절하며 빌었다.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 해가 지난 뒤 원장은 그녀를 용서하였다. 그녀는 다시 수도원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가장 하잘것없는 일만 맡아 해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했다. 그녀가 죽어서 그녀의 몸을 씻게 되었을 때에야 그녀가 여자였다는 것과, 그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살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그녀는 성녀 테오도라(St. Theodora)로 추대되었다.



성 패프너티우스(St. Paphnutius)는 한 희극배우를 개종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배우의 노예로 팔려 갔다. 그를 회개시키는 데 20년이 걸렸는데, 그 배우는 회개하면서 그를 놓아 주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과부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다시 노예로 팔려 갔다.

두 번째 놓임을 받은 때 그는 외투 한 벌과, 옷 한 벌, 복음서를 받았다. 외투는 그가 맨 처음에 만난 거지에게 갖고 옷은 두 번째 거지에게 갔다. 오히려 이런 일이 그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복음서를 혼자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었다.

그의 입에는 마른 빵과 물 이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었고, 성경 말씀 이외에는 나온 것이 거의 없었다.



성 싸이프리안(St. Cyprian)은 당시에 옥에 갇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여러분은 몸에 걸친 옷이 없고 소량의 빵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 존 크리소스톰(St. John Chrysostom)의 표어는 ‘모든 일에 있어 영광은 하나님께로’였다. 그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를 늘 이 말로 마감하였다. 겨울 눈 위를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죽었는데, 찬 돌마룻바닥에 누워 죽어 가던 그의 마지막 말 역시 ‘모든 일에 있어 영광은 하나님께로’였다.



타이스(Thais)는 이집트의 고급 창녀였는데 수도사인 성 세라피온(St. Serapion)이 그녀를 회개시켰다. 그는 보통 사람의 옷을 입고 그녀의 사랑을 구하려는 사람인 양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

녀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고 즉시 가구와, 옷과, 다른 모든 사치품들을 불태우고 세라피온을 따라 수녀원으로 갔다. 그는 3년 동안 그녀를 골방에 가두고 문을 밖에서 잠가 버렸다. 그녀는 빵과 물로만 살면서 3년 동안 이 한 가지 기도만 드렸다.

“나를 지으신 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3년이 지나자 세라피온은 환상 속에서 하늘에 준비된 훌륭한 저택을 보았다. 그 집이 성 안토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려니 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이 집은 타이스를 위한 집이다.”

세라피온은 그녀의 방문을 열었고, 열닷새 후에 그녀는 죽었다.

1899년에 그녀의 골방과 세라피온의 골방이 발굴되었는데, 그 방들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 있어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아 낼 수 있었다.



조시머스(Zosimus) 신부가 광야에서 한 벌거벗은 여자를 보았을 때 여자는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여자입니다. 당신의 외투를 던져 제 몸을 가리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젊었을 때 부끄러운 생활을 해 왔었다고 고백했다. 한번은 크리스천 축제가 벌어진 예루살렘에 돈을 벌러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후로 그녀는 산딸기와 풀을 먹으며 47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 왔노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의 옷이 갈갈이 찢어져 없어졌던 것이었다.

그녀는 조시머스에게 다음해에는 성만찬을 가지고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성만찬을 받고 노래를 불렀다.

“주여, 이제는 당신의 여종을 평화롭게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신부에게 사순절 기간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가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의 이야기였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강도들이 성 마카리우스(St. Macarius)의 골방을 뚫고 들어온 다음 수도원을 약탈해 갔다. 그는 그들을 도와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물건들까지도 내다 주었다.

한번은 다른 수도사의 골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려는 도둑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주의를 시켰다.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성 폴리카프(St. Polycarp)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종으로 지낸 지난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순교자의 길을 택했다.



성녀 페페투아(St. Perpetua)가 로마 황제들 아래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 던지워 졌을 때, 그녀의 허벅다리가 드러났다. 그녀는 고통스러워서 보다는 부끄러움에서 다리를 옷으로 가렸다.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St. Francis)는 어떤 잠못 이루던 밤에 나이트게일의 노래가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새와 번갈아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온 밤을 지새웠다.



성 토마스 무어(St. Thomas Moore)는 당시에 이혼과 재혼의 재가를 얻으려던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토마스의 아내가 그를 꾸짖었다.

“다른 감독들은 다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왕의 의사를 인정했는데, 왜 당신만 이가 들끓고 쥐가 덤벼드는 이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당신의 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집은 이 감방보다 하늘 나라에 더 가깝소? 내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은 죽음이 나를 찾아 오지 않겠소?”

그는 끝까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교수형을 당했다. 19세기 초에 피를 많이 흘린 라나바로나 여왕(Queen Ranavalona)이 마다가스칼을 다스리고 있었다. 크리스천들이 노예 매매를 반대했기 때문에 여왕은 그들을 미워했다. 그녀는 모든 선교사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성경책은 있는 대로 다 불사르게 했다. 그러나 여왕이라도 크리스천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라싸라마(Rasalama) 같은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태도가 그들의 용기를 크게 북돋워 주었다. 라싸라마라는 여자는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에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기 보다는 산 채로 화형을 당하는 길을 택했다. 벼랑에서 아래로 내려 밀린 몇몇 사람들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이러한 핍박이 50 년 동안 계속되었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는 노예들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쳤다.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먼저 그는 영국 배들이 노예들을 싣고 대양을 운항하는 것을 막았다. 그다음 대영제국 내에서의 노예 해방령을 얻어 냈다. 7월 31일 밤 자정에 18억 3480만 명의 노예들이 해방되었는데 이는 모두 윌버포스의 업적이었다.

그의 전 생애에 걸친 투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노예제도의 문제를 내 앞에 제시하셨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

“어떤 내적 감정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성격과 행위의 변화만이 그것을 증명한다.”



신앙을 지키려다 나치스에게 살해 당한 덴마크의 문크 목사님 (Kaj Munk)이 이렇게 말했다.

“어찌 어찌하면 진리에 소금을 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놀이 더러 있다. 그들은 진리에 소금을 잘 쳐서 통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조금씩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는 선포되기 위해 존재하며 진리란 선포될 때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산 신앙의 사람들도 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다. 요한처럼 그들도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별거벗은 진리가 자기들의 민족에게 가져올 손상과 고통을 더더욱 두려워한다. 그러나 어느날인가 그들은 무서움 때문에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과, 그들의 위선과 침묵과 거짓말이 천 배나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나라에도 이상한 신들과 교합하는 헤롯이 존재한다. 나는 안락을 위하여 수치스러운 행위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타협정신을 그렇게 명명했다.”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를 당한 독일인이었던 본회퍼(Bonhoeffer)

목사는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다.

“나는 내 믿음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 믿음은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버티어 냈다.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절망에 빠진 일이 없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나는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처형을 받기 위해 감방 밖으로 불리워 나갔을 때 그는 이 말을 남겼다.

“이것이 끝이고 삶의 시작이다.”



1954년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한 미국인 목사가 병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눈에 광기를 띤 한 젊은 여자가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외따로 있었는데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에 썩었다고 말했다. 목사님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려 하자 그녀는 발광을 하며 자리에서 떼굴데굴 굴렀다. 목사님은 그녀의 건강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두 눈은 정상적으로 보이며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며 목사님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달라고 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참 성인들이라고 할 만한 목사님들이 계신다.



데이빈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가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스물아홉의 나이에 죽은 것은 18세기 초였다.

그가 남긴 일기장에는 그의 피나는 노력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밀짚을 깔고 잠을 자며, 나의 일은 지극히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나를 고무할 만한 성과도 없다……. 화란인들은 내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사람들은 그가 인디언들에게 사람의 목을 자르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투로 그를 비꼬아 말했다.

8월 20일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밤새 오한이 나더니 오늘 아침에는 피를 많이 토했다.”

8월 22일

“계속 강위로 올라갔다…… 밤에는 한 데 숲에서 잠자다.”

8월 24일

“데라웨어 인디언 몇 사람을 찾아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는 몇 가지 귀중한 말들을 남겼다.

“하나님께서서는 평화를 위하여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른 돌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내 권리라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백 가지 잘못된 일이 있어, 그 때문에 자극을 받아 내가 한 가지라도 그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다. 비록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은 다 정당화하고 나의 한 가지 잘

못으로 내 인격 전체에 먹칠을 하고 나만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에라도.”

“은 세상을 친절과 용서와 관용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우
리의 영혼이 평온하고 온화하고 잔잔함을 느끼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추측이나 의심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거리낌
없이 활짝 열려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것이 바로 천국의 표상
이다.”



소련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가 회개시킨 10대 소년과 함께 감
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들을
던지가, 목사님은 그녀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인들 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당신은 영웅적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코끼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다. 위대한 성인이나 순교자가 될 자질을 타고 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로마 시대나, 나치스나 공산주의의 핍박 아래서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일이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용감하게 고문과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나약함에 대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당면한 위기가 지나면 얼마나 열렬하게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는가를 다 보셨다.

예수님께서 최소한 몇 마리의 양만은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수 있다는 것(시편 23:2)은 참으로 기적이다. 대체로 양은 드러 눕지 않는다. 양은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몇 시간씩 풀을 뜯는 법이다. 주위에 온통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드러누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이 온갖 재미로 당신을 유혹하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인들 가운데에는 성 안토니나 성 파프너티스나, 복자에 오른 다른 분들이나, 신앙을 위하여 감옥에서 죽은 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평범한 크리스천의 삶도 역시 크리스천의 삶이다. 평범한 크리스천도 역시 성인(saint)이다.



큰 도어버만 곁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도어버만이 작은 개를 우습게 여겨 이렇게 물었다.

“너도 개라고 하니?”

작은 개는 감히 큰 놈의 말에 반대할 수는 없어서 겸손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야 당신같이 큰 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저를 고양이라고는 못하실 겁니다.”

작은 개도 개다. 작은 크리스천도 역시 크리스천이다.

내 아들 미하이가 다섯 살 때 내가, 크리스천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걷게 되리라는 성경말씀을 읽어 주자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예수님에게는 아이들이 입을 만한 작은 옷도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예수님에게는 몸의 크기에 따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입을 옷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으나 그 행동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다. 우리는 영웅의 삶을 위협하는 망각이라는 속임수와 끊임없이 싸울 수도 있다. 신앙의 영웅을 숭배하는 사람의 사랑 속에 비친 영웅의 행위는 실제보다 더 아름답다울 수 있기 때문에 숭배자들은 인간에 불과했던 한 영웅을 전설적 인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것처럼 될 수 없다고 걱정해서는 안된다. 달팽이와 토끼가 같은 길을 걸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대신 당신은 영웅보다 더 오래 참고 견디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모든 크리스천은 성인이라고 불려진다. 다른 방도가 없거든 달팽이 크리스천이라도 되어라.

최고(the best)가 될 수 없거든 차선(the second best)이라도

되어라.

어떤 의미에서 태아도 이미 사람이다. 당신이 미술가의 자질을 타고 났다면 당신이 선 하나 굶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미술가이다. 크리스천이 믿음이 성숙하여 확신에 찬 한 걸음을 내딛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첫걸음을 내딛을 때에도 그의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신다.



성경에 기록된 큰 요구사항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명령에 당신은 압도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그분의 바램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다 미래의 바그너나 베토벤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음악가가 있겠는가? 그러나 삶이란 반드시 소원대로 되는 것은 아닌 법. 누구도 바램만으로 천재가 되거나 예외적인 성인이 되지는 않는다.

스펠존이 늘 하던 이야기가 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과수원으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 중 하나는 그 과수원을 몇 번 지나다가 호기심에서 땅에 떨어진 사과를 몇 개 집어 먹어 보니 시고 맛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과밭의 주인이 여러 번 오라는 청을 번번이 거절하였다. 마침내 주인이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그는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 사과밭의 사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임으로 나는 도둑놈들과 아이들에게서 사과를 지켜야 할 중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과밭 주위에 제일 맛있는 사과 나무를 두서너 줄 심었습니다. 그러자 도둑놈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님들은 사과밭의 안쪽으로 모시고 들어가 어느 사과와도 건줄 수 없는 맛과 향기가 있는 사과를 대접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손님들을 위하여서는 제일 좋은 선물, 즉 자신의 희생을 조용히 믿고 의지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행위나 공적이 없이도 누리게 하는 손님들의 특전이다. 그러나 이런 선물을 이용하려는 위선자들을 막기 위하여서 그분은 아주 신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를 과수원 둘레에 심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완전해야 한다는 말이나, 매일 자기들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이나, 고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신 사과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그분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주인이 드나드는 정문으로 들어가며 자기들은 아무 노력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기뻐할 뿐이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듯, 우리도 아무 잘한 일 없이 사랑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귀중한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보신다. 키엘케고르는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 마음의 순결함이라고 말했는데, 크리스천들이 이 한 가지만을 바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선과 참의 본보기이다. 이것은 그의 의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크리스천의 목표는 높아서 그는 언제나 정상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조각가 피데아스(Phideas)는 벽의 움푹 들어간 곳에 세울 다이애너 여신상의 뒷부분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조각을 했다고 전해진다.

“누가 그 뒤를 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들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만 한편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아 가려는 바람의 싹만 보시고도 기뻐하신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즉 사흘째 되던 날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왔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일한다는 점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다.



랍비가 한 유대인에게 물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웠는데 그 속에 그 주인의 신분 증명서가 들어 있다면 당신은 그 지갑을 어떻게 하겠는가?”

유태인이 대답했다.

“선생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게는 아이들이 많은데다가 가난합니다. 그러니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은 도둑놈이요.”

랍비는 다른 유태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저는 즉시 그 돈을 돌려 주겠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랍비가 세 번째 유태인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랍비가 그를 칭찬했다.

“참으로 옳은 대답이요.”

완전해야 함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의 의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없음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생애의 한 순간 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주시는 그대로의 것이다.



스탈린의 딸인 스페트 나 알리루예바는 소련에서는 살아 남기 위해서 누구나 어렸을 적부터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재의 독아에 물려 죽고 만다.

다행히도 자유 세계에서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진실 그대로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활태도가 나쁘다고 외쳐대며 살아갈 수도 없다. 주 예수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회람인에게는 회람인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 절대적인 문제는 그런 일을 다루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맡겨라.



절대적인 진리는 언제나 적용될 수도 없고, 더구나 전쟁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킬 수도 없다. 교회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전시에는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상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효과적인가를 따져야 한다.

영국 심리 작전부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난 스탠포드 크뤼스 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수단을 써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우리 편이 지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쟁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더러운 곳을 치우려는 사람은 자신도 더러워질 각오를 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영제국에는 스탠포드 크뤼스 경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처칠이나 처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몽고메리 장군이 런던에서 D-데이 작전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고 있을 때, 독일 첩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몽고메리 장군이

지브랄탈에서 알지어로 가고 있었다. 히틀러는 마음을 놓고 있었다. 몽고메리가 영국에 있지도 않으니 불란서 침공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독일 전함 그라프 슈피(Graf spee)는 수리를 위해 몬테비데오에 48 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다. 중립항에서는 그 이상 머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함을 기다리고 있는 두 척의 영국 배는 조그마한 배들로, 독일 전함이 쉽게 격파시킬 수 있는 배들이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영국 전함도 이 시간 내에 도착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영국 해군 본부는 속임수를 쓰기로 하고 작은 영국 배에 큰 전함과 항공모함이 곧 도착하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독일 해군 본부와 선장이 그들의 암호를 해독하리라는 걸 알고 일부러 쉽게 해독할 수 있는 암호를 썼다. 그 결과 독일 선장 랑크돌프(Langdorff)는 자기 배를 침몰시킨 후 자신은 자살하고 말았다.

이와 비슷한 사실이 사사기 20장 29절에서도 발견된다. 베냐민 자손을 급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사면으로 돌아가며 복병을 배치하였다. 베냐민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오자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척하며 적을 성에서 먼 곳까지 끌고 갔다. 적당한 순간에 숨어 있던 복병들이 나와서 베냐민 족속을 전멸시켰다.

전쟁에 이기려면 교묘한 속임수를 써야 한다. 크리스천의 싸움에 이기는 데에도 같은 술수가 필요하다.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크리스천의 삶을 영위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러한 타협들이 살아가는 데에나 싸우는 데에 때때로 필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은 한 사람에게 대해 신뢰를 갖지 않게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처럼, 사회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느모로든 손상을 입게 된다.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와 함께 낙타를 타게 해 달라고 간청하자 낙타를 탄 사람이 이를 수락했다. 그는 낙타에 올라타자마자 주인을 밀어서 모래 위에 떨어뜨리고는 도망을 쳐 버렸다. 그 뒤를 향해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내 낙타를 빼앗아간 게 분하지는 않습니다. 내게는 다른 낙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 사이의 신뢰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는 낙타를 가진 사람들이 외로운 여행자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낙타 등에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하지 않을테니까요.”

크리스천은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룩한 투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쩔수 없이 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을 때에만 거짓말을 한다. 나치스들이 화형시키려고 찾는 유대여자들을 수녀들이 숨겨 주었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대답으로 거짓말을 했었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타협의 문제는 거짓말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생의 전 국면에 걸친 문제이다.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기를 가지는 것의 위험을 틀림없이 알고 계셨을텐데도 검을 가지고 있다고 꾸중을 하시지 않고, 검을 쓰지 않아야 할 때에 썼다고 꾸중하셨다. 호우머의 말을 들어보자.

“검 자체가 싸우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생의 여러 가지 다른 국면에서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동시에 우리들은 반드시 타협을 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악인들의 선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면, 왜 우리들도 악한 열정을 억제할 수 없겠는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목자들이 어려운 처지를 당한 예수님의 가족에게 버터와 치즈와 우유를 조금씩이라도 가져갔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작은 실제적인 일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쓰는 하나하나의 편지가 사랑의 대사가 될 수 있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규율 중의 하나가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이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친 정직은 지나친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한 크리스천은 사무실 책상 위에 두 개의 연필을 놓고 쓰는데 하나는 회사용이고, 하나는 개인용이다. 개인에 관한 일을 쓸 때에는 개인용 연필을 쓰고, 회사 일을 볼 때에는 회사용 연필을 쓴다. 그러나 그는 두 연필을 바꾸느라 회사의 시간을 훔친 셈이다.

완전히 정직한 말이나 행동 이외에는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는 진보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며, 실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되지도 못하다.

기독교는 일상의 생활에서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마귀로 하여금 도망칠 기회를 줄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마귀가 후회할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면 그는 사생결단으로 당신에게 달려들 것이다.



선생님이 하루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종교란 무엇이지?”

한 아이가 대답했다.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들입니다.”

방울뱀을 만나면 급히 도망치듯 그런 종교에서 도망치시오.

약간의 조정이 없이는 삶은 불가능하다. 때로는 보통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들은 해야 할 경우가 있다. 파스칼의 말이다.

“천사노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악마가 된다.”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성자가 되라. 그러나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인간적인 성자가 되라.

크리스천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타협이 전혀 없는 원리 원칙대로만 나라를 다스린 왕들은 나라를 망치곤 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리라는 정도의 엄청난 약속들이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과 깊은 물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약을 먹이려면 쓴 약 위에 꿀을 발라서 먹여야 한다. 당신 주위에는 몸은 어린이가 아닐는지 모르나 마음은 어린이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본 진젠돌프 백작이 미국에 왔을 때 그는 성직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자신에게 ‘목사(pastor)’라는 직위를 붙여 소개했는데 이 직위를 그에게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역시 바울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준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었다.) 베토벤은 귀족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 앞에 ‘van’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더라면 결코 고급 사교계에 출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 베토벤(Van Beethoven)’이란 이름은 화려 귀족의 명칭처럼 들렸고, 그 덕분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피가 아니었다라면 그의 교향곡들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었을지도 모른다.

브라질의 페드로 왕(King Pedro)은 국내 최초의 공공병원을 세우려고 헌금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그러자 그는 백만 페소스를 기증하는 사람에게는 공작의, 50만 페소스를 기증하는 사람에게는 백작의, 10만 페소스를 내는 사람에게는 남작의 직위를 내리겠다고 공포했다. 그러자 당장 필요한 금액의 돈이 모금되었고, 병원이 완성되었다. 기념 동판의 제막식에 유명인사가 다 회집되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병원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자만심이 인간의 고통을 위해 기증한 것임.”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은 일을 성취하고 싶거든 당신은 다 알고 있다는 미소를 머금고 인간의 유치함에 찬사를 보내라.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당신과 같이 성숙한 사람의 수준에 놓고 이야기하면 통할 리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거든(그 사실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당신이 말해야 할 상대들은 당신을 내려다보고 말해야 할 사람들뿐임을 명심하라.



동시에 당신 자신도 죄인임을 인식하라. 베드로는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이 거룩하신 이를 부인했다.”

그도 그분을 부인했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역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범하는 죄를 다른 사람들이 지었다고 꾸짖는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놀라지 말라. 영계의 스타로 당신이 추앙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큰 죄에 대해서도.

루터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보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성격에는 그들과 싸운 교황이나 감독들에게서 발견된 오점만큼이나 큰 오점들이 있었다. 웨슬리나 리빙스턴의 생활에도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적들이 이 점을 맹렬히 비난했다. 영국의 침례교회는 자기 교파 출신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알즈 스펀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삶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함없는 생존의 법칙과 쓸데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말 것이다.

당신 자신의 성품에서 고칠 수 없는 점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예수님께 맡겨라. 당신 자신의 삶을 구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구상하도록 맡겨라. 그분께서 이제 당신 삶의 키를 쥐셨다고 믿고, 당신의 감정은 제멋대로 놀게 내버려 두어라. 그분께서는 당신을 겸손케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죄를 허용하실 것이고,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의를 주실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될 일들을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창세기 21 : 22).

당신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당신의 특권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위에서 위대한 전도자들의 성격에서 발견된 상처점에 대해 언급했었다.

곧 나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아마 나는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리라. 아니면 미래의 어떤 작가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리차드 뎀브란트라는 목사 같은 사람도 큰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죄를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비난을 받았지만, 몇몇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내가 지은 큰 죄와 교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난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었으므로 그들의 비난은 가볍게 취급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세를 잘 알고 있었다. 나도 매우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내게 손가락 질하는 사람들을 갖고 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내 전기를 쓴다면 이런 일들을 정리하여 한두 가지 혐의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거나 혹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내 죄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내 생애에 있어서 참으로 잘못되었던 몇 가지 점 외에도 나의 적들이 다른 결점들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약간만 머리를 쓰면 죄인도 성자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고, 성자도 죄인처럼 만들 수 있다. 최고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의 생애에서도 교묘하게 잘못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악한 찌꺼기가 남아 있게 마련이다.

내게 대한 악한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라. 범브란트의 생애에 있어서도 죄를 하나의 기정 사실로 인정하고 그런 죄인도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책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던 솔로몬 왕에 의하여 씌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의 구원까지도 의심한다.



위대한 전도자들도 실패하였다. 그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 범브란트도 실패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두고 떠나시기 전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베드로에게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도 없이 자신의 사업을 맡기셨다.

크랜머 대주교(Archobishop Cranmer)는 독재자와의 타협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는 체포 당하자 처음에는 자기의 말을 철회했으며 한동안의 방황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하여 화형틀로 걸어갔다.

성녀 잔 다르크도 역시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굽혔었다.

노년에 비스마르크는 자기는 실패하였으며, 자기가 한 일이 단 한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모두 은혜에 의해서만 살고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당신이 변증법의 제일 가정, 즉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는 수학, 작용과 반작용이 없는 사건, 양극과 음극이 없는 전기, 공격과 방어가 없는 전쟁, 죄 없는 성자, 덕 없는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순을 포함하여 당신 자신을 받아들여라. 루터는 모든 크리스천이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며, 목적지에 도달했고 또 동시에 목적지를 향하여 달음질치는 사람.”

이라고 말했다.

모순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싸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몇 번의 재앙을 견디어 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리라고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틀림없이 악을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악에게 점차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는 강도들이 수도원을 둘러싸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는 것을 알았다. 다른 수도승들은 경찰을 불러 강도들을 잡아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강도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물건은 빼앗되 죽이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자고 제안했다. 얼마후 그는 강도들이 주일과 축제일에는 훔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천천히 그들을 회개시켜 나갔다.

당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로움의 면에서 진보할 것이다. 나쁜

습관을 한꺼번에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뻐하라.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옛날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말아라.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당신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잘못을 고쳐 주신다는 점에 더욱 의존하도록 하라.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서 우리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보고서야 깨우침을 얻는 것 같다.



자만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면 자만심이 생기기 쉽다. 성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 보자.

“모든 종류의 악은 나쁜 일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나, 좋은 일까지 망치는 것이 자만심의 특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무한한 수고를 하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라.

자만심을 제쳐 놓은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썼다.

“나는 결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내 자신 이외의 누구도 꾸짖지 않겠노라.”

선하려고 노력하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협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열한 인습적인 선은 피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일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짚 때, 저울에 자신의 엄지 손가락을 올려 놓아서 안된다.

때때로 크리스천은 조국이 그를 부를 경우와 같은 때에는 무력전에도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거만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중세의 사형집행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처형하려는 사람들의 용서를 빌고서야 그들을 처형하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를 죽인 사람은 먼저 간디에게 절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존경을 표했었다. 크리스천은 비평하고 싸울 때에는 반드시 이런 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언제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성경에서 오른 쪽은 자비를 상징한다. 거세게 하는 것보다는 온유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크리스천은 겸손으로 전함을 삼고, 융통성으로 병거를 삼는다. 셰익스피어의 <마음대로 하세요>에 나오는 말에 따르면 크리스천은

“운명의 고집을 조용하고 아름답게 꺾는다.”

그는 소위 세상이 ‘정당한 분노’라고 부르는 것 속에도 사탄의 지혜가 번뜩이고 있음을 인식한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증대하고 얼마나 많은 죄이기에? 당신 자신의 죄보다 더 많고 더 무거운 죄인가?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당

신을 위해 영원한 형벌을 유보해 두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는가? 바로 이 순간에 용서와 지옥에 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라. 당신은 온유의 편을 택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겸손하게 해 줄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첫째, 인간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모스크바 대학의 한 교수가 서방 출신의 크리스천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당신네의 믿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개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면 왜 인류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 왜 그렇게 수십억만 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했느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겨우 여섯 켤레 날이 되어서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서두르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해와 꽃들과 동물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콜크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인간들의 포도주병 마개의 재료를 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콜크나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해 놓으신 일을 보니,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담과 이브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동산을 거닐으시며 백합의 향기와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기셨다.

두 번째 생각은 당신 자신이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크리스천은 말이 적다. 우리에게 혀는 하나가 있고 귀는 둘이 있다. 크리스천은 쓸데없는 말들은 삼가고 두 귀의 창조주되신 분을 찬양하는 데 혀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에 쓴 말의 대부분이 겨우 상식적인 이야기됨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근의 종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 근의 상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은 목적 수행을 포기할 정도로 유순해서는 안된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므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인간의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먼 나라의 왕에게서 왕국을 위임받은 귀족에 비유하셨는데, 이 귀족은 자기 나라 시민들의 투표에 의존하지 않았다. 자기 나라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몇몇 종들은 게을렀다. 그분은 자기의 통치를 거부하는 적들을 죽였다. 그분만이 지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려야 한다. 당신이 자신을 어느정도 그분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굳건할 것이고, 당신의 믿음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이다(갈라디아 1 : 8~9).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필요해서 집을 가질 수는 있으나 집이 당신의 소유욕의

상징이어서는 안된다.

산디에고 동물원에 갇혀 있는 알래스카에서 온 새들은 항상 북쪽을 바라본다.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참된 집인 하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



크리스천에게는 하나의 큰 행동지침이 있는데 이것이 곧 사랑이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빌려가고 돌려 줄 줄 모르며, 뒤에서 우리 흉을 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대가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쥘 오지 버너나드 쇼우(George Bernard Shaw)는 기독교(Christianity)와 십자가교(Crosstianity)를 구별하여, 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혹적인 도덕주의를 강요하는 종교라고 말하였다. 플리니 2세(Pliny the Younger)는 초기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가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가능한 한 증오의 싸움보다는 사랑의 경쟁을 택하라.

이 세상에서의 얼마 되지 않는 생애의 나날들을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니느라 허비하지 말라(서로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당신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당신이 그들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가능한 개인적 원한을 피하라.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어라.”

고 말씀하신다(누가복음 16:9). 진지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우정을 깨지 말라. 우정을 깨는 어떤 동기도 우정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당신의 지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왕궁 뜰에 두 개의 왕좌가 배설되고 싸움 중인 사람들이 불리어 나왔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들은 두 명의 남자였는데, 이들은 상대방의 수염을 붙잡고, 발로 차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로에게 퍼붓고 있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뜯어 말리고 나자, 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고 물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오, 왕이시여, 제가 이 무뢰한에게 발 한 뼘을 팔았고 이 작자는 그 값을 치루지 않았겠습니까. 그걸로 이 문제가 다 끝났습죠. 그런데 다음날 이 작자가 새로 산 그 발을 파다가 금과 다른 보석이 잔뜩 들어 있는 보물단지를 찾아 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발을 팔 때에는 발과 그 속에 든 모든 것을 다 판 셈이니 그 보화는 마땅히 이 사람 것이었습죠. 발을 팔기 전에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제 실책이었구요. 그런데 이 사기꾼 같은 놈이 내게 와서, ‘형제여 내게 그 밭을 잘못 팔았소. 내가 당신께 준 돈을 돌려 주고 밭과 보물을 당신이 도로 가져 가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거래를 완전히 무효 화시키고 나중에 불의한 짓을 했다고 저더러 하나님께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이나 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래는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 사기꾼아, 보물은 내 것이다.”

왕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말해 보라고 명했다.

“왕이여,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산 것은 밭 한 떼가지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물은 사지 않았습시다. 은전 몇 냥 주고 수백만 원짜리 보물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부당한 일이고 저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보물은 자기 것이고 결코 제 것이 아니더라고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바의 여왕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왕이 처음 남자에게 물었다.

“그대에게 자녀가 있는가?”

“열여덟 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제게는 스무 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왕이 판결을 내렸다.

“그대들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보물은 그들의 지참금으로 주도록 하거라.”

두 사람이 서로 겨안자 재판은 끝났다.

여왕이 말했다.

“나는 서로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 싸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귀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모르셨습니까? 우리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 말의 뜻은 우리 나라에서도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귀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와 같은 경우가 귀국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왕이 대답했다.

“쌍방이 다 보물은 자기 것이라고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물었다.

“그러면 여왕께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셨겠습니까?”

여왕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목을 베고, 내가 보물을 차지하지요.”

“귀국에서도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왜 그러십니까?”

“여왕의 나라에 아직도 해가 빛나고 있다는 건 순전히 동물들 덕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옳다고 고함지르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보내지 않습니다.”

†

†

†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을 통하는 길뿐이라는 말은 대성자 안토니에게서 나온 말이다.

전설에 의하면 아기 예수를 예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는 멜키올, 발드사살, 개스터 등 세 사람 이외에도 네 번째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알타반이었다. 구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알타반은 모든 가산을 다 팔아 가지고 아주 귀한 보물 세 가지, 즉 루비와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를 예수님께 드릴 선물로 샀다.

그러나 팔레스티나에 가기 위해 다른 세 동방 박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며 경비로 써달라고 사파이어를 주었다. 그가 구해준 사람은 유태인으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팔레스티나로 가려는 목적을 알자 그 유태인은 그에게 축복을 빌며 그가 만나 보려고 가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정이라고 알려 주었다.

알타반은 약속한 장소에 너무 늦게 도착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출발한 후였다. 그래서 그는 혼자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정말로 신비스러운 한 아기가 얼마전 마굿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천사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러나 아기의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사실 등을 알아냈다.

알타반은 외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웃집 사람이 달려 들어 오더니 헤롯의 군인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으며, 지금도 읍내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흐느껴 울며 말하였다. 알타반은 과부에게 끄팍 말고 집안에 있으라고 말한 다음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가 빗장을 질렀다. 칼을 빼든 군인이 그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군인에게 루비를 내밀며 말했다.

“이 집에 손만 대지 않으면 이 루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집 주인인데, 내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석이 탐난 군인은 보석을 받고 가 버렸다.

알타반은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 분에게 드릴 보물이 적어도 하나는 남았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알타반은 아직도 찾고 있는 분을 못 만났다. 마침내 그는 팔레스티나에 선지자이며 선한 일을 베푸시는 분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다른 곳은 다 찾아보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죄목으로 지금 끌고다로 끌려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알타반은 자기가 그분의 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갈보리로 달려갔다. 늙은 박사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보석이 남아 있었다. 이 귀한 보석을 형리들에게 주어 그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도중에 그는 노예시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린 소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절 구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종교가 내게 순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지금 수치와 죄악에 가득 찬 삶으로 팔리려 하고 있습니다.”

알타반은 한숨 쉬며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을 위해 남겨 두었던 마지막 보물을 이 소녀를 위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는 소녀를 구했다.

갑자기 온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났다. 알타반이 피해 있던 집이 무너지며 그는 허물어진 집 밑에 깔리게 되었다. 그는

죽어 가며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버리고 그분께서는 아무 것도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네가 나의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것은 끝
나를 위한 것이다. 와서 세상 처음부터 아버님께서 너를 위해 예
비해 두신 왕국을 물려 받아라.”

알타반은 그렇게 죽어 갔다.



레닌이 인류를 사랑했다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는 인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전체를 죽였
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인류란 추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을 가르치신다.

선교사들이 신약성서를 뉴우기니아의 미레바족의 말로 번역하려
했을 때 사랑이란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Nanuma-
ngund’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나는 너에게 나의 속 부분을
준다’는 뜻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의 핵심(soul of love)은 언제나 영혼을 위한 사랑
(love for souls)이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라.

사랑은 크리스천들의 특징이다. 특히 목사에게는 불타 오르는
사랑이 기대된다.

성 존 크리소스톰이 오랫동안 신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교구 내에 있는 어느 먼 지방을 찾아갔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곳에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농부 한 사람을 가르쳐서 신부로

임명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주교 관구(管區)로 돌아온 후에도 그의 마음은 편안치 못했다.

“성직자의 임무를 감당하기에 그렇게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을 신부로 세우다니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기로 하고 예배가 시작된 지 몇 분 지난 다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농부 출신의 신부가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 가나 지켜보려고 기둥 뒤에 숨었다. 이윽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는 과거에 어떤 신부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드리며, 짧은 설교에 그런 열정을 쏟아 넣고,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꼭 휘어잡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예배가 끝나자 성 크리소스탐은 제단 가까이에 나아가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빌었다. 감독을 본 신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감독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지요.”

감독은 고집을 피웠다.

“그대가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마음에 불 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를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식한 신부는 의아히 여기며 물었다.

“감독님,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눈 속에 어린 사랑의 눈길에 자신이 녹아지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증오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다. 큰 나무들은 더

큰 그늘을 주지만, 바람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나 당신을 겨냥한 화살은 결코 당신을 맞히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는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고, 당신은 이런 화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당신에게 외적인 고통만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이상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심했다. 아우슈비츠나 부켄발트의 사람을 태우는 난로나 가스실도 크리스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말살시키지는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까지도, 나를 그분에게서 몰아낼 만큼 큰 몽둥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 그것이면 족하다. 여타의 것들—여러 교파에 따라 다른 교리, 의식, 규범, 조건들—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저 사랑하라.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서는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을 돌려 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세 번, 맞게 될지도 모르리라. 유순한 태도를 적들은 나약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힌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마일을 가라고 하면 두 마일을 가곤 했다. 그 결과 다음날이면 일의 배당이 늘어서 지친 죄수들은 할당된 일을 다 하려다 몸이 부서지곤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분의 한 마일을 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하면 우리의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리라 약속하셨던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들의 사랑이 완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것으로 족하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의 완성 이외에는 아무런 이익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규범은 크리스천 생활의 모든 다른 영역에도 적용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어떤 배가 풍랑을 만나 SOS를 보냈다. 구조대는 곧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젊은 대원 중의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선장님, 파도가 너무 거칠고 바람이 세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장이 대답했다.

“아니, 가라는 명령이 내렸다. 난파 직전의 배가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러나, 선장님, 우리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젊은 친구야, 우리는 가라는 명령만 받았지, 돌아오라는 명령은 못 받았네.”



부당한 대우를 기쁘게,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농담이 있다. 어떤 사람이 정거장에서 소

리를 지르고 있었다.

“루빈스타인 루빈스타인!”

한 남자가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의 이름을 부르던 남자가 그의 뺨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못된 놈의 루빈스타인 녀석, 네가 받아야 할 걸 받아라.”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뺨을 맞은 남자도 꺾꺾 웃었다. 다른 승객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웃소?”

“내가 그 사람을 속였으니까요. 나는 루빈스타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발길질과 뺨맞은 일을 기쁘게 떠맡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벌해야 했을텐데도 잘못하여 당신을 벌한 사실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매맞고 죽임을 당하셨다.

30년대에 멕시코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종교 박해 기간 동안에 숨어 다니는 천주교 신부들의 목에 큰 현상금이 걸렸었다.

쥬다스라는 사나이가 한 신부에게 자기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당신을 팔아 돈을 좀 받아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신부는 쥬다스를 만났던 숲에서 나와 쥬다스가 자기를 팔아 아이들에게 줄 양식을 살 수 있게 하려고 같이 읍내로 들어갔다. 그 신부는 총살당했다.



예배를 보는 동안에 도둑들이 교회의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 이

일을 보고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에게 훈계했다.

“이 도둑들이 자기네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좀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일을 이렇게 잘 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 합시다.”

그리고 그는 예배의식을 계속 진행시켰고, 도둑들은 훔친 물건을 가지고 달아났다.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사랑은 역시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었던 한 영국 상사가, 자신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내가 있던 부대에 예수를 믿는 민간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을 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날 밤 그는 지쳐서 들어와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진흙이 잔뜩 묻은 내 장화를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 놓았지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장화가 깨끗이 닦여져서 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대한 그의 보답이었고, 그 대답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고수하라. 성경에 대한 비평이 아무리 학문적인 비평같이

들리더라고 거기에 단 한 푼의 가치도 두지 말라. 성경을 비판하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하라.

어떤 현대 미술 전람회장엔 그림 대신 텅 빈 화폭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밑에 ‘풀을 뜯는 소’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림을 보러 온 한 손님이 화가에게 물었다.

“이 제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풀도 없고 소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 그거요? 소가 풀을 다 뜯어 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소는 어디 있습니까?”

“풀이 없는데 소가 뭐하러 남아 있겠습니까?”

성경 비평가들은 이 화가와 같다. 그들은 성경에 텅 빈 페이지만 남겨 둔다. 하나님도, 기적도, 참된 역사도, 믿을 만한 가르침도, 마귀도, 지옥도, 낙원도 없다. 그런 화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말라.

성 존 크리소스탐이 말했다.

“성경을 믿어라. 성경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크리스천이다.”



주의깊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는 모순이 많다. 나는 모든 세부까지 꼭꼭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이야기들이다. 이야기들이 맞지 않기에 문에 성경을 믿으라.



†

성경에 대한 몇몇 과학자들의 회의주의에 관심을 갖지 말라. 과학자들이라고 얼마나 아느냐? 발자크(Balzac)의 소설에 나오는 어떤 과학자는 자기 아내의 울음에도 꿈쩍 않고 이렇게 말한다.

“눈물이란 무엇인가? 내가 분석을 해 보았지. 석회질과, 염소와, 약간의 점액과 물이 나오더군.”

그런 비뚤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은 성경의 글자 하나라도 다 믿으라.

†

†

†

편협함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과 똑같은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 라빈드라나드 타고일의 말이 옳다.

“편협함은 진리를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 하는데, 진리는 그만 그 속에서 짓눌려 죽고 만다.”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다.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게까지도.

†

†

†

무신론자인 강연자가 성경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전도서 1장 9절을 펴서 읽었다.

“해 아래는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X-레이, 라디오, 케이블, 기차 등. 몇 세기 전만해도 인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발명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크리스천이 그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성경은 일점 일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는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연사는 화가 났다.

“어찌 당신은 그렇게 완고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말만 하고 있소?”

그리고 나서 그는 X-레이, 라디오, 철도 등의 예를 들기 시작했다.

다시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태초부터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외양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마음(heart)을 보시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heart)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살과 뼈와 피부로 아주 잘 덮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렌트겐을 시켜 X-레이를 만들게 했고, 이것의 도움으로 우리 인간들도 사람의 내부를 꿰뚫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X-레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진리를 현대적으로 실물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던 연사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라디오는?”

“옛날부터 있던 것이지요. 인류가 생겼을 때 있었던 것이지요. 옛날부터 신자들은 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겨 이렇게 대답했지요. ‘하늘은 저렇게 먼 곳에

있다. 나는 바로 옆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없다. 그런데 저 먼 하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내가 소근소근 말하는 나쁜 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코니를 시켜 라디오를 만들게 하셨고, 이 라디오 덕분에 런던에 있는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영원한 진리를 의식하게 합니다. 라디오에서 강의하는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연사는 이제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면 기차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우리는 늘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회개하라!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티븐슨을 시켜 철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모든 기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시에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1분만 늦게 정거장에 도착해도 기차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는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오랜 진리를 잘 보여주는 보기이지요. 당신은 다음 순간에라도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디어 무신론자인 연사는 성경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고백했다.

성경은 진리이고, 거기 쓰인 글자 하나까지도 다 진리이다. 성경에 내포된 모순도 진리이다.



기도를 고수하라. 런던과 베를린이 직접 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직통할 수 있다. 단지 당신의 기도가 당신과 하나님들 중 철저하게 하나만을 결정하도록 하라.



절대로 주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듯 기도하지 말라. 세네카의 말을 들어 보라.

“신들은 인간들과 같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이 빌 때까지 주고 또 준다.”



응답 받지 못한 기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번 세계 대전 동안에 독일과 영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다 같이 승리를 위해 기도하였다. 독일인들의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영국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우리는 국가로, 민족으로, 계급으로, 당으로, 종교로, 그리고 각기 상반되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로 나뉘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어찌하여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셔야 하겠는가?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가 패망했거든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의 기도를 채택하셨다는 뜻이 된다. 그분은 아직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삶이 봉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여라.

당신에게 영적 힘과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한 소년이 예수님께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몇 배로 불러 쓰셨다. 만약 그 소년에게 아무 것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성경에는 ‘영(零)’이란 말이나 그것의 수학적 기호인 ‘0’이 없다. 성경은 수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히브리어나 희랍어의 알파벳 한 자 한 자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가 있어서, 모든 단어는 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내 아들이 파리에 있는 루터 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수학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이란 말이나 ‘0’이란 기호가 없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갈대아인들이 이미 영을 동그라미로 표기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의미심장한 사실이었다. ‘Zero(영)’란 말 자체가 갈대아어 ‘zero’에서 온 말이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零)이 아니다. 어떠한 은사(gift)든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쩌면 당신의 은사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은사조차 없다고 믿는 겸손일 수도 있으리라.



1972년 5월 21일에 나는 영국 싸우스포트에 있는 성 스테반 교회에서 환상을 보았다. 나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명상 중이었다. 나는 엘리야가 어떤 과부에게 빵 한 조각을 구걸한 일을 상기했다. 여인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었다

(열왕기상 17: 11~12).

즉시 내 눈 앞에는 배고픈 사람이 나타나서 성모 마리아에게 빵을 구걸하고 있었다. 성모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는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이고, 내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외치더군요. 내가 당신에게 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건디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아는 위안은 나누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배고픈 사나이가 열성 있는 전도자가 되어 수천 명의 사람이 열렬한 사모의 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도록 했다.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어떤 크리스천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고로 데리고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골라 보아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는 아름다운 금십자가였으나 너무 무거웠다. 하나는 가볍기는 했으나 거칠어서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 쉬울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기에게 맞을 듯 싶은 십자가를 구석에서 찾아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거라.”

그것은 그가 처음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십자가였다.

고통을 받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의 조그마한 부스러기 하나라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되, 악마로 알아라.

옛날 기독교 책인 <허마스 목사(The Pastor Hermas)>라는 책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보호 천사가 있듯이 그를 괴롭히는 개인적인 마귀가 있다고 쓰여 있다. 당신의 신변보호인인 천사를 잘 알도록 애쓰는 동시에, 당신의 마귀도 잘 알도록 애쓰라.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위험한 유행이 있다.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하던 일을 집어 치우고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다. 이것이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적으로 만들고 만다.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뒤를 쫓다가 그들은 자기의 친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만다. 있던 자리에 머물러서 할 수 있거든 당신 자신의 가족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드물고 예외적인 소명이다.

그리스도에게 진실한 크리스천일수록 지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어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그가 선교사가 되지 못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아주 특수한 유의 선교사가 되리라는 뜻이다. 물을 일부러 계곡으로 흘러 내릴 필요가 없다. 물은 자연히 아래로 흐른다. 선교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높은 경지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 내릴 것이다. 나는 선교일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선교 노력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뮤릴로(murillo)가 그린 ‘산디에고의 기적’이란 그림이 있다. 두 사람의 귀족과 한 사람의 신부가 어떤 부업에 들어간다. 그들은 부업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모두 천사인 것에 깜짝 놀란다. 하나는 냄비를 다루고, 하나는 채소를 다듬고, 하나는 불을 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천사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평범한 노동으로 만들기 전에는 어떤 노동도 평범한 노동이 없다. 제일 큰 사업을 맡았던 예수님 자신도 목수 간에서 일하셨다. 당신이 분명하고 예외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든 전문 직업적인 의미의 선교사는 되지 말라. 차라리 당신의 부업이나 공장에서 선교사가 되어라. 그곳에서 당신은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보다 넓은 세계를 잃지 말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꿈을 꾸어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 버리고 이곳 저곳 헤메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심지어 손가락에 금반지까지 끼워 준다.

이 탕자는 이제 만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유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비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대체로 그런 일을 저지른 젊은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상하는 일과 환락과 죄악 속에서 같이 지내던 이전의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이다. 또한 살전 송 아지라도 좀 덜 먹고 그가 잠시동안 살았던 나라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복음화하는 문제와 사회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완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신의 의무를 다 하되, 모든 일에 자중하라. 과도한 일은 금하라. 과도는 실망한 이들의 약이요, 혁명은 인민에게 있어서 최악의 아편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좁은 생활과 인류를 즉시 구원한다든지 정의를 구현한다는 지나친 욕망 사이에 바른 균형을 잡도록 하라. 이런 일들은 수세대에 걸친 노력 끝에 달성할 수 있는 일들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가난에 대한 투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가난이 있다.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무장해제와 전쟁 철폐를 이야기해 왔으나 베트남에만 떨어진 폭탄의 수가 세계 제2차대전 동안에 독일과 싸우기 위해 사용된 모든 폭탄보다 더 많았다.

우리는 세대간의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콘스탄티노

플에 있는 고대 박물관에는 인간에게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글씨가 적힌 조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아, 슬프도다. 시대가 예전과 같지 않음이어!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책을 쓰고 있다.”

애벌레를 억지로 번데기로, 번데기를 억지로 나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꿈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사회 국가를 계획하는 것은 이상향의 꿈이다.

악마들이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다.

“원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듯이, 인류의 사회 문제에는 답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회적, 인종적 분류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을 어긴 데 있다.

“너는 탐내지 말라.”

당신은 왜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가?

나만큼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내가 받아 먹은 것이라곤 일주일에 빵 한 조각과 매일 더러운 감자 껍질로 끓여 주는 국뿐이었다. 내게는 바지도 구두도 없어서 추위에 떨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아래서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당신의 아내도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신의 아이들이 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신비스러운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당신에게 내려 주시는 것이며, 그것으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다.

자발적인 가난과, 착취자들이 당신에게 억지로 씌우는 가난이 전혀 다른 문제임을 나는 알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가난은 물리쳐야 하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킬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당신에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힘의 일부이다. 매일의 사태와 계속되는 사건 속에 살지 말고, 영원 속에 살도록 하라. 백만 명의 굶주린 어린이들의 부르짖음도 영원을 교란시킬 수는 없다. 당신이 평정한 마음으로 하늘 나라에 앉아 있으면 당신이 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 열매를 맺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투쟁이 헛되이 끝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큰 돌을 굴러 올리고 있는 시지프스의 노력과 같아서, 돌이 굴러 내려올 때마다 다시 그 돌을 굴러 올려야 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이와 같았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건디어 온 것들은 조용한 사람들, 즉 일시적인 고통과 기쁨을 수반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곤 하는 거품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룩된 것들이다.

세상은 어떤 찬송가의 가사들처럼 단지 아름다운 동산만은 아니다. 세상에는 추악한 면도 있다. 이것은 조용한 사람들의 맹렬한 투쟁에 의해 극복될 것이다. 잔잔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투쟁과 개혁과 혁명과 전쟁을 통해 아주 훌륭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점이다.

숫 누에 두 마리가 한 암 누에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다가 무승부로 끝이 났다.

모든 사회적 투쟁의 결과도 이렇게 되고 만다. 싸움을 하는 양편이 다 종말에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금욕주의자 미라레파는 재산으로 물컵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것이 깨져 버렸다. 그러자 그는 이런 시를 남겼다.

진흙으로 빚은 나의 잔이
있다가, 이제 없어졌다.
나의 유일한 재산이—
잔은 깨짐으로 라마(lama)가 되었다.
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놀라운 교훈을 남겼으니

당신 자신을 당신의 영혼에 바치라. 신앙 깊은 인품은 강한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인간 사회문제는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할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
도다”(시편 127: 1~2).

‘헛되도다’라는 말이 세 번.

물론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노예제도를 반대한.
투쟁가요, 위대한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불멸성을 믿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청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죽었다. 그후 약 2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 타볼산(Mt.
Tabor)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타볼산은 팔레스티나에
있으므로 모세의 소원이 그가 바라던 것보다는 좀 늦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졌다는 뜻이 된다. 영원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2천
년이 뭐 대수로운가!

“항상 너의 불멸성에 참되어라.”

고 솔제니친이 썼다. 그러면 사람들은 피테가 라바테르(Lavater)에
대해 한 말을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당신도 순결해진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가?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반항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섹스나 술이나 음악이나 마약보다 더 고차적인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벨파스트가 혼란하던 시기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50%나 줄었고, 우울증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사람의 수도 줄었다. 이웃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줄어든다. 정력을 쏟을 만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평은과 국가나 인종사이의 평화는 지루하기 짝이 없다.

또한 모든 반항에는 절망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흥분한 군중은 사태가 달라지기만 하면 그것이 보다 진보된 사태인가 아닌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파리를 땅벌과도 바꿀 것이고 땅벌을 말벌과도 바꿀 것이다. 혁명이 사회 위계를 바꾸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개선하는 일은 드물다.

60년 동안 계속된 중국혁명을 시작한 Sun-Yat-Sen(孫逸仙)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가 처음 중국혁명을 수행하려던 의도를 분석해 보면 중국 인민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나, 결과는 이와 정반대여서 중국 인민은 점점 더 압박을 받게 되었고 나라는 점점 더 불행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많은 이유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게릴라 등을 반대해 왔다.

종교개혁시대에 독일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났을 초기에 루터는 '평화를 위한 충고'를 썼다. 그러나 사태가 난폭해지자 그는 '살인적인 농부들의 폭동에 반대하여'라는 팜플렛을 썼다. 그는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정당한 주인들에 대한 반항아들이라고 꾸짖으며 그들의 진압을 촉구했다. 폭동이 진압되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고 풀이했다.



이 모든 것을 명심하라. 쉽게 싸움에 발을 들이밀지 말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길 각오를 가지라.

당신은 싸움에서 나약함을 보일 때마다 그것의 쓴 맛을 단단히 맛보게 될 것이다. 단톤(Danton)이 튀레리(the Tuileries)를 공격했을 때 루이 16세는 피를 보게 될까봐 자기 군대가 왕궁을 방어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국회 의사당으로 몸을 피했다. 결과는 그가 자기 권위를 방어했을 때 흘렸을지도 모를 피보다 더 많은 피흘림이 있었다. 단톤의 폭도들이 왕궁에 들어가 시종무관에서부터 시작하여 궁정 요리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후 시체에까지 모욕을 보였다. 그리고서 공포정치가 시작되었고 종국에는 단톤 자신까지 그것의 희생자가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마음대로 하세요>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랑이란 한숨과 눈물, 믿음과 봉사,
환상, 모든 정열과 모든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것.
모든 찬양, 의무와 공경, 모든

겸손, 모든 참을성과 성마름, 모든
순결과, 모든 시련, 모든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사랑에는 이 이상의 것이 있다. 루이 루도빅 16세가 불
란서 국민을 사랑했더라면 그는 최선을 다해 반항군들과 맞서
싸웠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들의 맹렬한 투쟁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를 확인하도록
하라.



사막에서 살며 수십 년 동안 기도와 금식의 생활을 끝낸 교부들
사이에 가장 고귀한 크리스천의 덕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자, 한 사람은 '의로움'이라고 말했고, 한
사람이 '근엄'이라고 하면, 또 한 사람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대 성자 안토니는 다음과 같은 말로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최고의 덕은 이 모든 것에 절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에 모두들 찬성했다.



예수님께 오고 나면 당신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그분의 교회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내에는

추하고 욕지기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교회는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듯이, 가장 부패한 교회라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 교회 목사의 설교를 참을 수 없다고? 설교가 못마땅하다고?

마치 우리에게 형편없이 나쁜 설교의 본보기라도 보여주려는 듯 예수님도 천박한 크리스천들이 나쁜 설교라고 생각할 만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여자를 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그 여자가 다른 나라 여자라는 점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고,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음식은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그 설교는 얼른 듣기에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설교는 검은 배경으로 그 뒤에 그 여인의 아픈 딸을 고쳐 주고, 그녀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아름다운 행위가 부각되고 있다.

목사님들의 나쁜 설교는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당신도 얼마나 자주 나쁜 말을 하는가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견딜 수 없는 설교들도 지난 2천 년 동안 인류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바쳐야 마땅한 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온 제도(교회)의 산물이다.

약하고 나쁜 설교에도 배울 점이 있다. 발람이 겸손의 본을 보였었다. 그는 당나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분명한 언어로 들려주었을 때 기꺼이 그 말을 따랐다.

당신은 설교자에 대해 불평을 하나, 듣는 사람 편에서의 잘못도 있음직하다.



참된 교회와 그런 이름만을 가진 기관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데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가 교회 국가에 결정적인 지위를 부여했는데(여기에서 대부분의 주요 종파가 갈라져 나왔다) 그는 데살로니가의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학살한 이물이었고, 콘스탄틴 대제의 전기는 무시무시할 정도이다.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Clovis)는 기독교도인 크로틸드(Clotilbe) 공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는 알레망스와 의 싸움에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면 그녀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의 승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기독교의 신앙에 따르려면 프랑크는 알레망스와 싸울 게 아니라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했다. 그의 국민들은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키에브의 브라디미로(Vladimir) 공작은 비잔틴의 공주 앤(Arne)과 결혼하기 위해 크리스천이 되었고, 러시아인 전체를 억지로 믿게 하였다.

좋은 교황이나 감독들도 많았지만 나쁜 교황과 감독들도 많았다. 사도들의 제단 위에 쌓인 현금이 곧장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허다했다.

로마에다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율리우스(Julius) 교황은 전쟁을 좋아한 사람이었다.

루터를 추방한 교황 레오 10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도에 얽힌 우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왔는가!”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을 때, 수 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은 후 겨우 '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원칙에 따라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군주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기반을 굳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충실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런 교회에 대해 사무엘이 사
울에게 한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대가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대를 버렸
노라”(사무엘상 15:26).

루터와 멜랑크톤(Melanchthon)은 자기들이 너무 많은 일을 개
혁했음을 후회하였다.

멜랑크톤이 1530년에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아, 감독들을 통한 교회의 세속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적 통치를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교회의 질서와 통제를 벗어난 후의
교회의 형편이 걱정되도다.”

루터도 멜랑크톤에게 이런 말을 썼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정도가 지나쳤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개혁자들이 충분한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음을 유
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개혁 교회들은 이전의 천주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편협한 태도를 취하였다. 영국 성공회는 번연
(Bunyan)이나 웨슬리(Wesley)의 생존시에는 그들을 용납할 여유
가 없었다. 그들이 죽은 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와서야 웨스
트민스터 사원에 그들을 기념하는 패가 걸려 있다.

천주교회나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개혁교회도(무신론자나 비기
독교적인 체제하에서는 제외하고) 세상과 똑같다. 누구나 다 유아
세례를 받고 누구나 다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교회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자기네에게 맡겨진 돈만 오용할 뿐이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돈문제에 있어서는 제사장들보다 벽돌공들이 더 신임을 받았었다. 그후에도 사정은 변하지 않았다.

위클랏(Wycliffe)의 말을 들어 보자.

“신부계급이 교회의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들에게서 그 권한을 박탈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셈이 된다.”

그리고 본회퍼의 말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가 교회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도해야 하며, 목사들은 신도들이 자유 의사로 드리는 헌금에 의존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세속적인 직업을 겸직해야 한다.”

이름만의 교회에 대해 폴 티리히(Paal Tillich)는 이런 말을 했다.

“종교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야 할 첫마디 말은 종교를 반대하는 말이어야 한다.”

이러한 그의 말은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의 총합>에서 한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신앙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고위 성직자들이라도 밀의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이 거짓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이란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 크리스천들이 다른 크리스천들

에게 저지른 잘못은 나치 당원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다른 이교도들이 저지른 잘못과 맞먹는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크리스천이 되면 당신은 신앙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과 참다운 교제를 갖게 된다.

별 가치가 없는 것을 위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위조가 기독교의 가치를 증명한다. 깨끗한 삶을 사는 척하는 사람은 있어도 악한 삶을 사는 척하는 사람은 없다.

위선자들은 기독교에 맡기고 당신은 참된 교회에 가깝게 밀착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실된 시(poems)라고 할 만한 위대한 성자들도 더러 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poema'라고 하는 희랍어를 사용하고 있다(에베소 2:10). '교회'라는 말을 십자가를 지는 참된 신앙인들의 성스러운 교제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교회와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지내지 않는 사람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교황 펠라기우스의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실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 두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성스러움(godliness)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참된 크리스천들도 배신할 수 있고, 잔인할 수 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덕이 있고, 성자들에게도 죄가 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더러 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Gratia non tollit naturam.” (은혜는 본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을 때일수록 조심하라. 은혜와 선물이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쉽게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에게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는 이들의 교제장소이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부정확한 말인가.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만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마리의 동물 위에 앉으셨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이 세련되지 못한 언어로 쓴 부분도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멸시받는 사람이 되셨고, 강도들 중의 하나로 여김 받았으며,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에는 부정확하고 모호한 부분도 있었으며, 우리에게 신부들이나 목사들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인간의 무지와 착각에 가득 찬 설교나 책으로 우리들을 가르치리라는 것도 아셨다.

볼품없는 예배 의식에 참가했을 때에는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 불품없는(humble) 교회는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humble incarnation)의 연장이다.



이러한 종파와 참된 교회와를 구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들은 주일이 되면 수백 개의 종파로 나뉘어진 교회로 각각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참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요한복음 16:32). ‘흩어지다(scatter)’에 해당하는 희랍어는 ‘scorpihete’인데, 이 말은 ‘전갈(scorpions)’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모든 형제들에게 다음의 원리를 적용하라.

“필요한 일에는 통일, 불확실한 일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

이 통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멜랑크톤의 마지막 말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께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면서도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혼란과 불화가 검은 구름처럼 점점 더 퍼지게 될 것이다.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조차도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줄 모임이나 교역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이미 받은 것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라. 당신이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손톱 끝으로 나무 뿌리에 매달려 평생을 살아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선명해질 보다 나은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라는 말을 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음도 분명히 알아 두라. 교회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접적인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양심의 자유가
교회의 권위보다 더 크다. 교회는 항상 성자들을 못 알아 보고
많은 성스러운 이들을 이단이라고 못박고 정죄했다.

당신이 참된 교회와 같이 달리지 않으면 당신의 경주가 헛되다는
점을 알아 두라. 그러나 동시에 가장 참된 교회와도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함도 알아 두라. 당신은 교회내에서 발견하는 사실로 인해
낙망하지 말아라. 보르기아(Borgia) 시대에 바티칸을 보고 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유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저런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편입에 틀림없다.”

나는 대체로 교회의 추한 면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편이다.
병원에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냄새, 피, 고름, 앓는 소리에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데, 병원이 아픈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의사와 간호원
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불쾌한 환경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병원의 아름다움이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가 죄인들과 범법자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다. 이 죄인들은 교회의 받아들임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죄를 짓는데 이번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비호 아래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가슴에 안아 준다.

나는 이것을 아름답게 본다.

그리고 교회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쁜 사람들에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교황은 즉시 예복을 벗어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로마에서 한 사람이라도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면 교황은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교회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배출해 왔고 지금도 배출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보고를 당신은 얼마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좋건 나쁘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은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적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냈겠는가? 누가복음 24장 16절이나 요한복음 21장 4절에 따르면 그분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했었다. 가령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허위로 고발할 음모를 꾸며 놓고, 자기들이 증인석에 서게 되었을 때 피고를 범인으로 알아 보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면 이 사건은 완전히 묵사발이 되고 말 것이다. 위조범들은 대체로 머리가 썩 좋은 사람들이다. 만약 사도들이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이었다면 왜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도 알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위조범으로서는 용서받지 못할) 여러 번 되풀이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자 했고, 사실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을 쫓아 내기에 충분한 표적을 행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사셨음을 알았고 우리들도 알고 있다.

그분은 하늘에서만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살아 계신다. 만약 당신의 영적 눈이 열려 있어 다른 형제를 본다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에 있는 왕좌에 자리를 잡고 계신 것을,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그 형제가 예수님의 두 팔에 감싸여 그분의 가슴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에 매달리라. 그분은 살아 계신다.

그분이 틀림없이 죽었었는데도 그분의 시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분의 제자들이 그걸 훔쳐 갔었을까? 그랬더라면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약속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전부가 후에 순교했다. 누구도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 일을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그분의 시체가 그분의 적들의 손에 있었다면 사도들이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분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제사장들은 그분의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이기만 하면 되었었을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믿게 되었던 3천 명의 사람들은—바리새인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음이 분명하다—예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무덤 속에 누워 있다는 것을 보았더라면 아예 부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이었고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자기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판명되어 신용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들도, 원수들도 그분의 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다.

당신은 세상과 교회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대심문관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마드리드의 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원하지도 않는데 나타나서 자기가 이룩해 놓은 기독교를 위협스런 처지에 빠뜨린다고 생각하여 예수를 송환시킨 다음 예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에 대해 긴 설교를 늘어놓는다. 이상주의자이고 낙원을 꿈꾸던 몽상가였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를 어떤 고정된 틀 속에 밀어 넣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화형시킴으로 기독교를 지속시킨 사람들은 바로 이 대심문관 같은 사람들이었다.

대심문관의 모든 모욕과 잔인함에 대해 예수님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끝까지 조용히 들으셨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인생이 아니던가? 대심문관이 말을 마치자 예수님은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떤 모욕이나 잔인함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입맞춤이 되도록 하라.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입맞춤을 바랐었다.



당신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들을 빨리 떠나라.

한 가지면 축한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필요했다. 그분이 못박혔을 때에도, 심지어 그분이 시체가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만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분도 그녀를 무척 사랑하셨기에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는데도 그녀의 입맞춤과 사랑의 행위를 받아들이셨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여자가 자기 옷에 손을 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었다. 예수님께서도 단 한 가지만이 필요했다. 막달라 여인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이.

그녀가 예수님을 본 눈은 바로 예수님이 그녀를 본 눈과 똑같았다. 육체적인 눈은 많으나 영적인 눈은 단 하나뿐으로 이 눈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믿는 이들이 공유한다.



한 목자가 나이팅게일에게 노래 부르라고 말하자 나이팅게일이 대답했다.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고 있어요. 그 때문에 노래 부를 마음이 나지 않아요. 개구리들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목자가 말했다.

“물론 들리지. 그러나 네가 조용하기 때문에 내 귀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활보하라. 증오와 불신앙의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건 당신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실하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때, 낙원은 당신을 영접하는 일을 영광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낙원이나 하늘의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의 부름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지금 아버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듯 당신도 그분의 보좌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이 보좌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계시록 8:21). 낙원은 당신이 잠시 쉬는 곳일 뿐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고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늘 나라의 임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당신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귀를 기울일지 어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이 내게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9년 전 서방세계로 나온 후, 설 새없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에 대해 글을 써 왔다. 내가 공산당의 감옥을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도 공산당의 감옥은 내게서 나가지 못했다.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젊은 화가가 여자들의 얼굴을 수십 장 그렸는데, 그 얼굴들은 모두 깨진 화병처럼 깨져 있었고, 시든

꽃들처럼 퇴색되어 있는데다 차갑고 매서운 눈을 갖고 있었다. 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으며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리스도만이 주제가 되는 책을 썼다. 이 책을 통해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의 감옥으로 끊임없는 억눌림을 당하던 내 마음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

• 역자 전덕애

전북무주 출생

경기여중, 이화여고 졸업

서울여상, 이화여고 교사 역임

경남 거창고교 교사(재직중 도미)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시 소재

Reformed Bible College 수료

캘리포니아주 소재 Chapman College에서

영문학 석사학위 취득

현재 경남 거창고등학교 교사

새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1판 1쇄/1990년 6월 25일

1판 5쇄/1992년 12월 20일

등 록/1990년 3월 29일 제 15-65호

지은이/리차드 범브란트

옮긴이/전 덕 애

펴낸이/박 종 오

펴낸곳/도서출판 연합

주 소/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653-6호

새한빌딩 402호

전 화/858-2145 838-8581·2

F A X/863-0867

© 1990 전덕애 Printed In Korea **값 2,800 원**

총판 연합기독교백화점

*파본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역자와의 협약으로 인지란 생략합니다.

*도서출판 연합은 기독교출판실천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ISBN 89-85059-24-6